



코스피 2147.00 (+59.81)	코스닥 737.66 (-5.92)
금리 (연이자율) 0.866 (+0.015)	환율 (100원) 1216.80 (-8.60) (3일)



[산업]
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08

역대최대 35.3조 슈퍼 추경 24조 빛내... 건전성은 최악

코로나 3차 추경

코로나 극복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패키지 규모 270조 달해
홍남기 "재정건정성 악화 감내
중기적 재정건정성 확보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산업계와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티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움추러든 가계에는 소비 촉진과 고용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도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

받침할 재원을 5조원 넣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하고,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는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유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900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로는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

용 안전망 강화(1조원) 등에 올해 안으로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을 쓴다.

중소기업 8만 곳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하는 바우처 지원에 2880억원을,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 산업단지 및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용자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발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나 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서 단기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광주·울산·경기 시흥

인공지능 수소 무인자동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부 3개 지역·8개 지구 선정
광양만 울촌3산단은 지정 해제

광주, 울산, 경기도 시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광양만 울촌3산단은 지정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황해(시흥) 추가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I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겐오토밸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역이 선정됐고,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과거 미개발지를 지정해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기존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먼저 고려했다. 또 국가 산업과 지역정책 연계성을 강화해 산업·연구기관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일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번에 3개 지역·8개 지구(9.951km²)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내의 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생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체 의료, 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해 외부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AI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소 등을 유치해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3641억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등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은 전주기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동·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작년 성장·수익성 악화 3곳 중 1곳 이자도 못내

한은 2019기업경영분석
제조업 매출액 3년만에 감소전환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모두 악화했다. 매출액은 4년 만에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했다. 수익성 악화로 3곳 중 1곳은 이자를 낼 만큼의 돈도 못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2만5874개의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2%에서 -1.0%로 뒷걸음질 쳤다. 매출액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15년(-2.39%) 이후 4년 만이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매출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성장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이 크게 흔들렸다.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2018년 4.

5%에서 2019년 -2.3%로 감소 전환했다. 지난 2016년(-1.4%)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4.7%로 하락했다.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3%에서 4.6%로 '반토막'이 났고, 비제조업도 5.1%에서 4.8%로 하락했다.

대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2%에서 4.6%로 떨어졌고, 중소기업은 5.6%에서 5.2%로 하락했다. 성장성, 수익성 지표에서 모두 대기업 충격이 더 컸다. 번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3곳 중 1곳이 나왔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이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593.3%에서 360.9%로 크게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금융비용부담률이 커진 영향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승인

일본, 조속한 국내 수입 협의
중증환자 중심으로 투여 예정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세계 유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된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 허가가 떨어졌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는 의약품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최종 결정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으랏차차!’ 유동성의 힘… 증시,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코스피 59.81p 오른 2147에 마감
삼성전자·SK하이닉스 6%대 급등
“경제재개 기대… 전기·전자 반등
3분기 고점돌파 시도, 4분기 회복”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81p(2.87%) 오른 2,147.00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7%나 급등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글로벌 자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부담도 뛰어넘을 만큼 투자심리는 회복된 상태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81포인트(2.87%) 오른 2147.00에 장을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종가 기준 2100선 돌파는 지난 2월 25일(2103.61)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16조775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은 1조3060억원을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1조1367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2062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 돌아온 코스피 대장주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종목은 단

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각각 6.03%, 6.48%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7% 이상 상승, 코로나19가 확산할 무렵인 3월 6일(장중 고가 5만7200원) 이후 약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한때 8만9200원까지 올라 지난 3월 10일(장중 고가 8만9400원) 이후 석 달 만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종목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나란히 급락했다.

이후 코스피가 반등하는 가운데에도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상대적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4~5월 두 달간 코스피가 15.67% 상승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6.18% 오르는 데 그쳤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2.16% 하락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 며칠간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앞서 코로나 사태로 이연된 수요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관련 종목의 실적 회복에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당분간 상승세 지속”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기대보다도 가파르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분간 조정은 없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풍부한 유동 자금이 주식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살포하고 있다”면서 “실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7조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이는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밸류에 대한 우려도 크지않다. 코로나19 이후 PER 기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코로나 2차 확산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 대응이 일상화됐고, 경제 활동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재개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밸류 부

담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내 금융시장의 베어 마켓(하락장) 우려는 찾아든 모양새다. 3분기 고점돌파를 시도하고, 4분기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 은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리세션(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견제 없는 정책은 시장의 복원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하반기는 기업실적 및 경기 개선의 시차 문제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과거 금융위기 사례와 같이 밸류에이션의 팽창이 먼저 진행되고, 기업이익과 같은 실물 지표의 개선이 뒤따라 오는 패턴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3분기경 기업실적 개선 가시화로 전 고점 돌파 시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4분기는 내년 경기,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정의당 청년본부와 청년학생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19에 맞서는 청년학생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해고 및 임금체불 금지, 차별 혐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학생 등록금 환불, 정부가 나서야”

개원 앞둔 21대 국회 ‘반환’ 주장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민생법안에
등록금 반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의당 “등록금·방세·無알바 3중고
3차 추경에 반영, 국가서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환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서 대학 등록금 환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부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승진 미래통합당 교육수석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이어가며 등록금 환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환부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대학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도 힘을 보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ihj@

넥슨, 글로벌 엔터기업에 1.8조 투자

비전 공유사 물색중… 경영참여 안해

넥슨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한다.

넥슨 일본본인은 2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15억 달러 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웬 마호니 넥슨 최고경영자(CEO)는 “넥슨이 보유한 현금을 주요 엔터테인먼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만들어내고 유지해 온

넥슨의 비전을 공유하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느 회사에 투자할 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투자회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넥슨은 올해 초 자회사 네오플에서 1조5000억원을 벌린 바 있다. 최근 1년 여 동안 약 2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해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넥슨에서 또 다른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투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김정주 NXC 회장. /NXC

마스크 ‘수급 안정’… 수출규제 완화엔 ‘신중론’

5부제 폐지… 주 3장 구매가능

5부제 폐지 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 시장을 좀 더 지켜본 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끝난 지난 2일 오전 광화문 일대 약국은 일상과 다른 없는 모습이었다. 약국 출입문엔 ‘공적 마스크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다.

지난 3월 5부제 시행 초기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 줄도 ‘마스크 매진, 문의 사절’이라는 경고문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간히 보이는 손님들은 저마다 재빠르게 약사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해 제 길 을 갔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최모(27) 씨는 “마스크를 미처 챙겨 나오지 못했을 때 더러워졌을 때 요일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어 난감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며 활짝 웃었다.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 씨는 “5부제가 폐지된 첫날에 손님들이 약국을 많이 찾았다”며 “저번주 월요일과 이달 1일을 비교해보면 마스크 판매량이 1.5배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마스크가 없어서 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보관해 놓으려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마스크 수급은 이제 좀 안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수출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경기도화성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환영이다”면서 “고용 창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혜택, K-브랜드 형성 등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 국산 마스크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완화를 원하는 상황이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국내외 종합적인 마스크 수급 상황과 감염병 확산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태홍 수습기자 pth7285@

유턴社 보조금·K방역·수출 지원... “코로나 경제 새판”

(200억)

(80억)

(3217억)

산업부, 26개 사업 총 1.1조 편성 수출회복, 그린 뉴딜 등에 포커스 R&D센터 국내 유치 추진에 30억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3175억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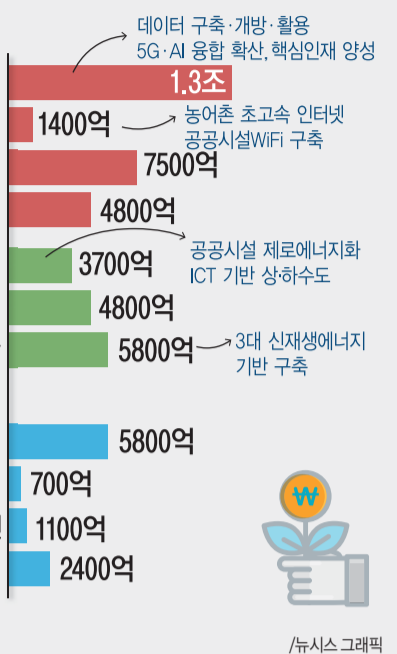
우선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주주 지원과 수출 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54억원, 간접수

한국판 뉴딜 추경 주요 내용 단위:원

디지털 뉴딜	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D.N.A. 생태계 강화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3. 비대면 산업 육성 4.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	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간·생활 녹색전환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 안전망 강화	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3.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4.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5.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 추진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키 위해 유턴·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를 상향

등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 추진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유턴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지원 내용도 입지·설비 투자액에 이전 비용을 추가했고, 국비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원에서 수도권 기업은 150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2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는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부품기업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고,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 산업에 지원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과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조기 구축이 시급한 백신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고,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에는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4조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저탄소 녹색 산업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이 핵심 과제다.

또 산업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올해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1조 농산물·외식 소비 2773억

‘한국판 뉴딜’ 농업분야에 748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8000억원이 투입되고, 농산물·외식 소비 촉진 등 농식품분야엔 2773억원, 수산업계 지원 등에 778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예산을 비롯해 총 1조542억원의 3차 추경안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등 인프라 확충에 1404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관련 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쓴다. 14~18세 청소년 235만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65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67개 보건소에 음압 선별 진료소를 짓는데 102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비로는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외식 소비 촉진 등 13개 사업에 2773억원을 3차 추경에 편성했다. 여기에 공무원 출장여비 등 줄어든 경상경비와 사업감축 등 2512억원을 남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선 농산물과 외식 소비촉진과 농촌 관광 활성화, 수출 확대 등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 400만장)하고,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명)한다. 또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 적응하도록 경영컨설팅(5.4억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촌관광 30% 할인쿠폰(18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23억원)을 추가 지원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이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도 1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778억원을 3차 추경으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210억원)을 발행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진출에도 51억원을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국민외교

2020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외교를 중심으로

외교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고자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외교 정책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자격 외교 정책에 관심 있는 전 국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연구원 등 제외)
※ 참가 형태는 단독 및 공동 참여 (최대 2인까지 가능)

응모 주제 외교 정책 전 분야에 관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외교를 중심으로

응모 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2020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선택 → 응모하기
-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정책제안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공모전 접수 이메일: peoplediplomacy18@gmail.com

상세 일정 - 응모 기간: 2020. 5.8 ~ 6.30
- 결과 발표 및 시상식: 2020. 7월 중
※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이메일) 예정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기준 창의성(20%), 논리성(30%), 계속성(20%), 적용범위(15%), 노력도(15%)

대상 내용 -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5인
- 수상자 전원 외교부 장관 표창 및 트로피, 부상(대상 노트북 외) 수여

유의사항 - 수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상내역 별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정책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향후 2차 기공 등을 거쳐 국민 대상 설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외교부에 있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 정보 유포,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공모할 수 없으며, 기타 법적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 있음.
- 시상 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품 환수
- 응모작 수는 제한이 없지만 중복 수상은 불가함.
- 최종수상 시 시상식 참석 필수

문의처 외교부 국민외교팀
이메일: peoplediplomacy18@gmail.com / 전화: 02-2100-8279

“국민외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민외교 모바일 앱”

회계사수장 첫 온라인투표...“개혁 완성” 오구동성

〈五口同聲〉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선거 병행 홈페이지 통해 후보 정견발표 동영상 젊은 회계사 위한 복지공약 줄이어

오는 17일 2만2000여명의 공인회계사(CPA)를 이끌 한국공인회계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5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회계개혁 완성과 상생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로 회장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젊은 회계사를 공략하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 등의 공약도 쏟아졌다.

3일 한공회 홈페이지에는 (기호순) 채이배 전 의원과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등의 정견발표를 담은 동영상상이 공개됐다.

5명의 후보들은 현 최종경 회장이 앞장섰던 회계개혁 완성과 업계 상생, 과도한 책임 완화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기호1번 채이배
前 국회의원



기호2번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기호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기호4번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기호5번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회계 개혁을 마무리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준감사 시간제도의 정착과 주기적·직권지정제도 확대해 강화하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국내 빅4 회계법인 출신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의정활동 4년 만에 40년된 낡은 자유수입제를 폐기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만들었다”며 “신의 감법을 반드시 지키고 보완해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

인 등록제도는 개선·보완할 계획이며,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내세웠다.

유일한 학계 출신인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공동 책임연구자로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회계제도는 아직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외감법 개정의 힘써 왔던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업해 현재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민근 안전회계법인 부회장은 “중견·중소회계법인·감사반 및 대형회계

법인이 함께 이뤄가는 상생의 회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소형회계법인에 한해 1인 사무소(지점)도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 4년간 한공회 미래 전략부회장과 직무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현행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8년이라 언제든 피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너무 오랫동안 감사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타 전문직과 외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균형 잡힌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젊은 회계사들의 표를 잡기 위한 공약도 쏟아졌다. 이전까지 현장투표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다. 젊은 회계사들의 참여가 대폭 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젊은 회원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증원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세무사의 직역침해시도를 절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켜가겠다”며 “현실과 인력수요에 맞게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비상장회사의 감사·세무 기한을 4월 말로 변경해 업무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오는 17일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와 현장 모니터 투표로 치뤄진다. 선거결과는 당일 공개되며, 회장 임명식은 바로 열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절박한 JY “기소 여부 외부서 심의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대내외 경영 불안에 ‘SOS’ 신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 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나섰다.

사법 당국이 여전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SOS’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고,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관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등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삼성의 조치가, 수사 당국이 그동안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기소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으로 대내외 경영 불안에 빠져있는 상황. 사업지원 TF 주요 경영진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반도체 비전 2030’ 등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전문가들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에도 그렇다할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더라, 검찰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표적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1년8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오는 동안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당시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현직 주요 경영진까지 100여명까지 1000여회에 걸쳐 소환했음에도 그렇다.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미 종결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수사할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단순히 회계 기준을 GAAP에서 IFRS로 변경하면서 생긴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합병 자체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수사 자체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열고 3분의2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juk@

>> 1면 ‘램데시비르...’서 계속

美 NIH 임상시험서 입원 기간 31%단축

에볼라 치료제로는 아직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초 램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질본은 현재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에서도 램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함께 램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램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은 국내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램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려면 아직 상업화 임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는 현재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램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구 계획에 맞게 연구자 임상, 상업화 임상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은 전반적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수입되는 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금융위, 카드사에 영세가맹점 주말대출 허용

영세가맹점 자금 확보 어려움 해결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매출 대금을 받았다.

다만 이 경우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영세가맹점은 최대 4일 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대해 주말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말 대출은 영세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신청하면 주말 중 일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시흥 배곧지구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육성

>> 1면 ‘광주·울산·경기 시흥...’서 계속

2030년까지 국내외기업 5조5544억원 투자 유치가 목표다. 울산과학기술원,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과 협력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 부품,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생산유발 12조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을 예상하고 있다.

향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2022~20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1242억원 투자유치가 목표다. 생산유발효과 5조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897명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잠시^詩

겁쟁이

“너희 동네는 괜찮니?”

“사람 많은 곳은
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손은 깨끗하게 잘 씻고
안 그러면 큰일나니까...”

괜찮다고 달래도
무섭다 하고

걱정 좀 그만하라 해도
멈출 줄 모르는
겁쟁이

우리 엄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행복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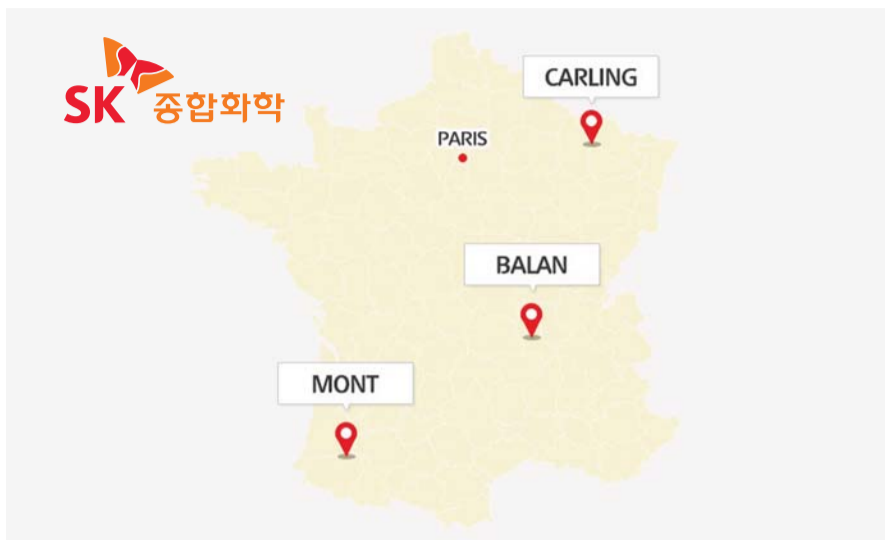
SK종합화학의 ‘딥체인지’… 佛 폴리머 사업 인수 매듭

아르케마사 제품 영업권 등 인수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 기술 확보
친환경 포트폴리오 다변화 속도
소재 자립 생산… 해외 의존도 ↓

SK종합화학이 고부가사업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프랑스 아르케마사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지난해 10월 아르케마사의 폴리머 사업자산을 3억3500만 유로(약 4392억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고기능성 폴리머는 기능이 강화된 폴리머 소재로서 패키징, 이



SK종합화학이 인수한 아르케마사의 프랑스 생산설비 위치도. /SK종합화학

종재료용 특수점접착소재,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고부가 화학 제품이다. 인수가 마무리 될

에 따라 SK종합화학은 아르케마사의 프랑스 내 생산시설 3곳과 4개 제품에 대한 영업권, 기술 및 인력 등 사업 자산

일체를 갖게 돼, 향후 소재 기술력 강화와 패키징 산업 확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SK종합화학은 범용 화학제품에서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그린 성장 전략’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고객 확장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창출을 기반으로 친환경 화학제품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이 인수한 사업의 제품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 시장 규모는 2016년 270억 달러(약 33조5340억원)에서 내년 350억 달러(약 43조4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로 SK종합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100% 수입에만 의존했던 소재의 자립 생산을 통해 국내 패키징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 등 플라스틱 수지 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공략하는 교두보로 삼아 향후 글로벌 패키징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은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인수가 마무리 됨에 따라 그린 성장 전략이 속도를 내게 됐을 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종합화학은 앞으로도 친환경적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그린 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글로벌 고부가 소재 회사로 근본적인 변화(딥체인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한화토탈, 디지털 기술로 ‘언택트 정기보수’ 땀나는 더위에… LG 프라엘 클렌저 판매 쑥

‘스마트 글래스’ 원격시스템 도입
현장·해외 기술선 직원 만족도 ↑

한화토탈은 대산공장 정기보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글래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글래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파일공유와 동영상 및 스냅샷 촬영,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 장비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현장 점검 대안으로 국내 한화토탈 직원을 비롯해 해외 기술선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화토탈이 스마트글래스를 안정적



한화토탈 정비팀 직원이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해외 기술선 직원과 대화하며 기계 설비를 보수하고 있다. /한화토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내 P-LTE망(개별 무선통신망)이 있다. 한화토탈은 2017년 국내 석유화학기업 최초로 전 단지 어느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지 내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높은 곳이나, 고온·고압의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무

선 센서, 무선 디바이스 등을 통한 다양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한화토탈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산공장 내 방향족1공장의 정기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석유화학공장의 정기보수는 3~4년에 한 번 공장가동을 정지하고 노후설비 교체 및 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향후 공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책임지는 핵심 작업이다. 정기보수 기간 중에는 해당 공정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직원들이 기술지원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들의 입국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스마트글래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산공장 현장과 해외 기술선 간 비대면 실시간 미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수지 기자

저자극 앞세워 인기… 판매 2배 늘어

LG전자가 출시한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가 여름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3일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의 지난달 판매량이 4월 판매량의 두 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특히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는 수량 기준으로 LG 프라엘 6종 가운데 전체 판매 비중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세정력을 유지하면서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저진동 초음파 클렌징 방식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는 초당 최대 37만회에 달하는 초음파 진동을 활용해 피부 자극을 줄인다. 저자극 초음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 /LG전자

파 진동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흔들며 균열을 내면, 세안제로 만들어진 미세한 기포가 원활한 세안을 돕는다. 실리콘 소재 브러시는 분당 최대 4200회 미세 진동하며 노폐물을 제거한다. 미세 먼지, 황사 등이 유행하는 봄철과, 더위에 땀이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철에는 꼼꼼한 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에 대한 고객 관심은 지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한화큐셀, 태양광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서
5년 연속 ‘톱 퍼포머’ 선정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 디엔브이제이(DNV GL)와 피브이엘(PVEL)이 실시하는 ‘2020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에서 5년 연속 ‘톱 퍼포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본 평가는 태양광 산업 내 가장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표 중 하나로서 한화큐셀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우수한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재입증하게 됐다.

모듈 신뢰성 평가는 -40℃의 저온과 85℃의 고온 등 극한의 실험조건에서 모듈 출력이 2% 이하로 감소한 경우 톱 퍼포머를 수여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



한화큐셀의 한국 인천공장 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한화큐셀

화큐셀은 큐피크 듀오 시리즈 등이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한화큐셀이 자랑하는 ‘퀵템’ 셀 기술이 적용돼, 태양광 제품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높은 안전

성을 제공한다.

아울러 큐피크 듀오 시리즈의 제품 우수성은 이미 다수의 어워드 수상으로 입증됐다.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2017년 영국 태양광 매체 ‘솔라파워 매니저먼트 매거진’이 태양광 제조 전 과정을 평가해 시상하는 ‘솔라파워 어워드 2017’을 수상했다. 2018년 6월에는 태양광 산업 내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는 ‘인터솔라 어워드 2018’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태양광 모듈 중 유일하게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한화큐셀은 최근 큐피크 듀오 시리즈의 신제품인 큐피크 듀오 G9를 국내에 출시했다. 큐피크 듀오 G9는 제품 출력 기준 최대 460Wp(와트피크) 수준으로 일반 태양광 모듈(400Wp수준) 대비 10% 이상 출력이 향상된 제품이다.

/김수지 기자

지하철 4호선 ‘LTE-R’ 기술로 안전 강화

LGU+ 31.5km 구간 적용

LG유플러스는 한국전과기지국과 손잡고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26개 역사에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적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당고개부터 서울역을 거쳐 남태령에 이르는 본선 31.5km 구간에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답십리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 자리에는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해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 및 경영진들에게 세부적 진행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LTE-R은 4G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를 도시철도 운영 활용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노후화된 열차무선설비(VHF 방식)를 개선해 달리는 열차간, 열차와 관제센터간, 유지보수자 상호간 필

요한 음성,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이용객들의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LTE-R의 끊김 없는 영상 신호를 통해 관제센터뿐 아니라 운행 중인 열차의 기관사도 역사 진입 400m 전방부터 승강장 화면을 볼 수 있다. 기관사는 이를 통해 스크린도어의 이상 유무와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운행 중인 객차 내 CCTV 영상은 기관사와 함께 관제센터, 역무실에도 공유할 수 있어 객실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번 LTE-R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이 가능해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빨라진다. LTE-R은 음성통화 방식 중 하나인 ‘IMS(IP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를 채택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군·경·소방의 PS-LTE와 원활한 교신을 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klni@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코로나로
사업유지도 힘든데
제품개발·마케팅은
무슨 돈으로?”

소규모제조업 ☆
☆ 긴급자금 나오는 날

✓
제품개발
비용내는 날

코로나보릿고개, 함께 넘다! ⑥

최대 3천만원!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지원 대상	서울 소재(사업자등록지 기준) 도시제조업체 • 업종: 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제조업(벤더·프로모션 업체 포함),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업 등 • 규모: 소기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규모별 차등 지원	10인 미만: 1천만원 이내 / 10~20인 미만: 2천만원 이내 / 20~50인 미만: 3천만원 이내
지원 내용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비 지원(3개월간 고용유지 조건)
일정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후 지급(동 사업 관련 지출 집행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비교하시고 선택·신청하세요 (중복 수혜 불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	자세한 안내는 02-120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seoul.go.kr
지원 금액	총140만원 (70만원 X 2개월)	사업장 규모별 최대 3,000만원까지	
사용 용도	제한 없음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비	
조건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업력 6개월 이상)	3개월간 고용유지 조건(50인 미만 사업장)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LG전자-LGU+, KT 주도 AI원팀 합류... “곳곳서 시너지”

대한민국 AI 1등 국가 위한 MOU
기술·경험 공유 등 AI 경쟁력 제고
ICT·로봇 등 다양한 산업 역량 강화

LG전자와 이동통신사 KT,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잡았다.

이들 3사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AI원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다. KT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AI원팀에 참여해 ▲AI 역량 기반 사회적 이슈 해결 기여 ▲보유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AI 역량 강화 ▲제품,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AI 경쟁력 향상을 통



3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KT AI/DX융합사업부부장 전홍범 부사장, LG유플러스 FC부부장 이상민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한 사업성과 창출 ▲산학연을 연결하는 AI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

우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KT의 통신 데이터와 감염병 확산방지 노하우에 LG유플러스의 통신 및 로밍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LG전자 제품과 AI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관점에서 감염병 확산과 위험을 방지하는 모델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AI 원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 산업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AI원팀은 KT, 현대중공업그룹에 LG전자, LG유플러스가 합류하면서 정

보통신기술(ICT), 스마트선박, 제조, 로봇에 이어 스마트가전, 스마트기기 등 보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LG전자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실리콘밸리(미국), 토론토(캐나다) 등 전세계 5개 지역에 AI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딥러닝, 알고리즘, 강화학습, 에지컴퓨팅,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AI 원팀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AI 경쟁력 향상 및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KT AI 플랫폼 ‘가가지니’와 LG전자 ‘LG 씽큐’의 상호연동, 대화 확대 등 시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홈IoT 서비스와 LG전자 가전을 연동해 스마트홈을 진화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AI 원팀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 실무형 AI 교육’ 및 ‘AI 전문

인력 육성’에 함께 참여해 AI 인재가 산업 전반에 골고루 활동하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소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FC부부장 부사장은 “국내 AI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협력에 나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신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범 KT AI·DX사업부부장 부사장은 “KT는 AI 원팀과 함께 AI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이슈 해결, 그리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정체성 살리고 고급화

현대차 ‘더 뉴 싼타페’ 디자인 공개
전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적용

현대자동차가 3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싼타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2018년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로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싼타페는 전면부를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며 완벽한 변화를 줬다. 라디에이터그릴은 이전 모델보다 가로로 길게 늘었다. 영문 ‘T’자 형태의 주간주행등은 라디에이터그릴 좌우측에 붙은 헤드램프와 연결했다.

더 뉴 싼타페의 내장은 고급감과 직관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디



현대차 더 뉴 싼타페 외장.

자인됐다. 높아진 센터 콘솔은 문에서부터 크래시 패드까지 하나로 이어지며 운전자를 감싸는 듯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하단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더한다. 실내는 전

체적으로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비슷하다.

싼타페는 이 달 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언박싱’ 행사를 통해 출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4·A5’ 국내 출시

출시 행사 유튜브 등 온라인 진행

아우디가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4’와 디자인과 편의성, 실용성을 더한 ‘더 뉴 아우디 A5’의 한국 출시를 알렸다.

아우디는 3일 오후 7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제한된 장소에서 진행했던 출시 행사의 틀에서 벗어난 온라인 론칭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더 뉴 아우디 A4’는 5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아우디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으며 2종의 TFSI 가솔린 엔진 모델과 2종의 TDI 디젤 엔진 모델로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쿠페의 다이내믹함과 아반트의 실용성, 세단의 편안함을 모두 갖춘 ‘아우디 A5’의 2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5’ 또한 스포츠백, 쿠페, 카브리올레 등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4’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5’

용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더 뉴 아우디 A5’는 3종의 가솔린 엔진 모델과 1종의 디젤 엔진 모델, 콘셉트에 따라 스포츠백, 쿠페, 카브리올레로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SKT, 신입사원 채용면접에 비대면그룹 방식 도입

자체 개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
면접 필요한 기기·데이터 지원

SK텔레콤이 언택트 시대 새로운 면접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대기업 신입사원 정기 채용 최초로 비대면 그룹 소통 방식인 ‘인:택트(Interactive Untact)’ 면접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면접자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하는 한편, 면접에 필요한 태블릿PC와 태블릿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 다자간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면접 방식의 ‘인:택트 언택트(인택트)’를 선보일 예정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 풀HD급 화질로 그룹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택트 면접은 HD급 화질로 1:1 질의 응답형식의 면접으로 진행 중이다. SKT가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은 풀 고화질(HD)급 화질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을 맞아 당초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원격 교육용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면접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보완해 인택트 면접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면접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통화용 태블릿, 면접 자료용 태블릿, 거치대, 가이드북 등의 면접 용품들로 구성된 ‘인택트 면접 키트’를 면접자의 집 주소로 배송한다. 지원자들은 약 일주일 전에 면접 키트를 받아보고, 면접 전에 접속 환경 등의 테스트를 2회 진행하게 된다.

원활한 면접 환경을 위해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환경에 따라 데이터 끊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면접자에게 제공되는 태블릿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SIM카드를 장착해 발송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K-드론시스템’ 기술 시연 진행

저고도 안전 비행가능한 관제 솔루션

KT는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UTM)’인 ‘K-드론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국도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시연 행사는 KT 외에도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정부기관과 블루젠드론, 유콘시스템, 메타빌드 등 다수의 드론 제조사가 참여했다.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드론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행 일정과 경로를 사전에 분석해 이륙을

허가 하는 등 저고도(150m 이하)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제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KT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정 운영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 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개발했다.

KT는 이날 시연에서 배송, 방제, 측량 등 각각의 미션을 부여 받은 6개의 드론이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륙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미션을 완수하고 착륙을 승인 받는 전체 과정을 안정적으로 선보였다. /김나인 기자

‘한남3’ 외나무다리서 만난 **현대** **대림** **GS** ... ‘후분양’ 대세

오늘 1차 합동설명회
내일부터 홍보관 운영

- 현대건설
‘골든타임 분양제’ 적용
- 대림건설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 GS건설
사업자 권역별 분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남3구역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후분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4일 오후 7시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1차 합동설명회를 실시한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는 오는 5일부터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조합원만 출입시킬 예정이다.

업계 최고의 관심사는 후분양 여부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선분양’ 방식 대신 분양 시기를 미뤄 분양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는 후분양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앞서 시공사 선정을 마친 강남권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에서는 차별화된 후분양 전략이 수주결과와 직결되기도 했다. 3사의 관계자는 합동설명회 전까지는 후분양과 관련된 언급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골든타임 분양제’를 적용해 분양시기를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개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을 모두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림산업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라는 항목만 제시했을 뿐 분양 시기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무효가 된 1차 입찰에서는 ‘골든타임 선택

제’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입찰제안서 비교표에서는 빠졌다.

GS건설은 사업지를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분양하는 권역별 분양, 미분양시 최초 일반분양가 기준 100% 대물변제라는 방안만 제시했다. 1차 입찰에서 후분양에서나 가능한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과 같은 방안은 제외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큰 만큼 지금까지의 수주액과 상관없이 수

주에 성공하게 되면 단숨에 누적 수주액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현대건설(1조 2130억원)이 한남3구역을 수주하면 수주액 3조원대로 압도적 1위로 올라서게 되고, GS건설(3287억원)이나 대림산업(5387억원)이 수주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한편 한남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한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 8880억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해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크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1일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지역이 밀집한 사업지에서 가장 먼저 아파트를 지으면 향후 재개발 수주를 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한남동 재개발 지역은 강남과 강 하나를 두고 마주보는 사실상 ‘준강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수주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미래에셋운용 ‘1호 리츠’ 3분기 내 상장

‘맵스제1호리츠’
광고신도시 도심형 아울렛 투자
목표 수익률 10년 평균 6% 이상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첫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맵스제1호리츠) 기업공개(IPO)를 3분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맵스제1호리츠는 내년 9월 완공되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광고신도시 소재 도심형 아울렛에 투자한다. 이 아울렛은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약 160만명 규모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중양역(신분당선)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광고신도시와

수원 구도심·수지, 분당 등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수원·화성·기흥사업장과 광고 테크노밸리, 법조타운 등 대규모 업무시설이 밀집돼 양질의 배후 수요층 확보도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우량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소개했다.

장기 임대인이 임차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GS리테일이 상업시설 전체에 대한 임차인으로 2035년까지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약

2780억 원 수준이며 목표 배당 수익률은 10년 평균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롯데아울렛과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해당 건물을 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전차인의 매출 연동 전대료와는 독립적으로 GS리테일(임차인)로부터 고정 임대료를 받아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대표는 “맵스제1호리츠는 광고신도시 도심형 아울렛을 시작으로 상장 후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성장성이 높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자산을 편입해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형 리츠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외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술루션을 제공하는 리츠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태화기자 alvin@

KB증권, 비대면 고객자산 10조 돌파

올해만 약 70% 증가
100만원 이상 1150% ↑

KB증권은 자사 온라인 고객자산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 이후 은행연계·비대면 영업의 후발주자로 나선지 약 4년 만이다.

특히 비대면 자산의 경우 2016년 말 대비 22.3배가 증가했으며 올해만 약 70%가 증가했다. 온라인 고객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실질고객수는 약 28만 명으로 비대면 온라인 영업을 시작한 이래 1150% 증가했다.

고객의 투자자산도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자산 증가로 확대됐다. 주가연계증권(ELS)·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잔고가 6000억원

을 넘어섰다.

KB증권은 온라인 플랫폼 강화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에 론칭한 모바일 거래앱(MTS) 마블(M-able)은 2020년 4월 기준 월 접속자가 52만명을 기록했다. 첫째 대비 538% 증가한 수치다.

해외주식거래 고객수도 2017년 대비 925% 증가했다. KB증권이 작년 초 출시한 해외주식투자 서비스인 글로벌 원마켓은 1년만에 가입자수가 10만을 넘어섰고 현재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작년 말 대비 2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주식에 투자할 때 환전없이 원화로 거래할 수 있으며 추가 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

작년 상장사 10곳 중 4곳 재무공시 미흡

전년도 보다 16.9%p 늘어

상장사들 10곳 중 4곳 이상은 작년 사업보고서에 재무공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00개 상장법인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44.5%인 1112개사에서 재무공시 가운데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률은 전년도보다 16.9%포인트나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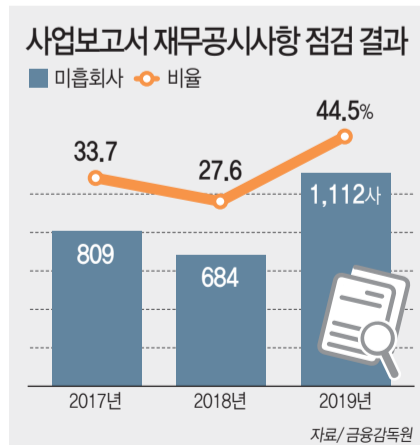
미흡사항별로는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에 대한 기재 미흡이 61.7%에 달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연중 실시한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그밖에 ▲재고자산 현

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도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및 ‘감사보고서 본문’에 핵심감사항목(KAM)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코넥스·비상장법인은 일부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잘 알지 못해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2402개사 중 46.3%인 1114개사의 기재가 미흡했다. 미흡률은 전년 대비 29.6%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 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투자증권, FC전용 콜센터 오픈

한국투자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FC)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FC 전용 콜센터는 영업 일선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투자권유 활동을 하는 FC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용 창구다. 계약 및 비대면 계좌개설, 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FC 시스템 사용법 등 FC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FC는 위탁계약을 맺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인력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협회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산관리인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약 2300명의 FC가 총 2조500억원 가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FC를 대상으로 각종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활동과 고



객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지점 영업직원으로 구성된 FC서포터즈도 운영 중이다. 김도현 PB전략담당 상무는 “FC 전용 콜센터 오픈을 계기로 향후에도 FC에 대한 영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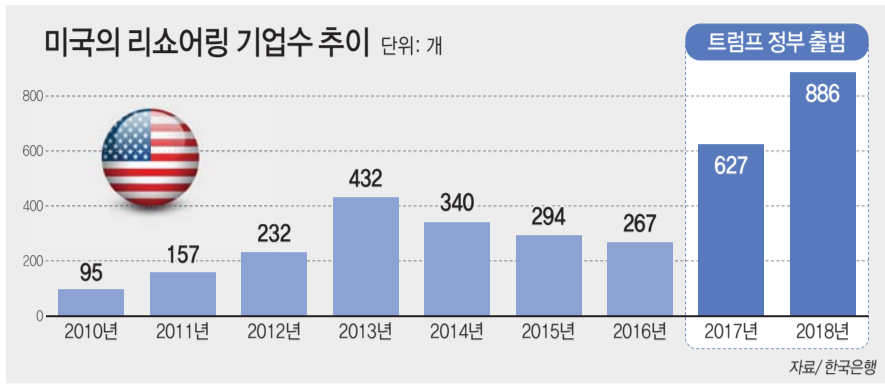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 F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FC 전용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脫세계화·리쇼어링 속도 붙을 것”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한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항방·시사점 주요국, 코로나 대응에 자국이 우선 비대면·디지털 분야 글로벌 대응 확대 디지털경제 서비스업 확장세 이어갈듯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이동원·이아람 한국은행 경제연구위원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BOK 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항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탈세계화 가속…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선 주요국이 의료물자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오히려

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또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자연재해 등 충격을 증폭하는 요인이라는 인식도 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략물자산업 보호, 리쇼어링 증가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자 부족 등을 계기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물자산업 보호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통상조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비용절감 중심의 글로벌 분

업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점을 노출하면서 리쇼어링(해외에 투자한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추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 대신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이 등장해 저임금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자국이 이익을 우선해 의료물자 수출제한, 일방적 국경 폐쇄 등과 같이 상호협력 기반의 자유무역주의와 상충되는 조치를 시행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갈등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 둔화로 인해 미·중 상호의존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2015년 당시 난민사태, 재정위기 등으로 EU(유럽연합) 회의론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이 자국 이익에만 집중했고 향후 EU 연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디지털 분야, 글로벌 차원 협력 필요

반면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경제의 저변이 확장됨에 따라 향후 동 분야의 교역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압력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서비스 부문은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디지털 경제 관련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 경제 회복 촉진, 감염병 재유행 예방, 기후변화문제 완화 등 협력이 긴요한 이슈에서는 세계적인 공동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감염병 발생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기후변화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고, 특히 보건위기와 기후변화 문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국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세계화 퇴조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된다”며 “이점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협약의 강제성 부과 등의 논의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여 국제논의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박미경 수습기자
mikyoung96@metroseoul.co.kr

다시 증가세... 지난달 외환보유액 4073억弗

지난 달 33억달러 늘며 두달 연속 ▲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 증가 영향 4월말 韓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수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3억 달러 넘게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0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73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감소 전환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4월 37억7000만달러 증가한 뒤 지난달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외

화자산 운용수익,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미국 달러화지수(98.38)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57억1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42억달

러 늘었다.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맡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00억1000만달러로 1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28억달러로 4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인 IMF 포지션은 39억달러로 7억9000만달러 늘었다. 금 보유액은 47억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40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915억달러), 2위는 일본(1조3686억달러), 3위는 스위스(8877억달러)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홍경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오른쪽)이 마트에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실물 카드없이 현금인출... 잔돈은 내 계좌로

한은,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실시 거래은행 다른 경우 대금결제 가능

앞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은 물론 결제, 잔돈 계좌입금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3일 은행 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14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16곳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서비스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원 협의회로, 의장은 한은 부총재가 맡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한다.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의 대금결제,

현금인출(캐시백·cash-back),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 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참여은행 간 CD·ATM 교차 이용도 된다.

이번 서비스는 16곳 중 SC제일·농협·제주·수협·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10곳은 먼저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금결제 등을 위한 가맹점 서비스는 농협하나로마트 직영매장 약 300곳에서 우선 실시된다. 올 하반기 중 이마트 24(4697곳), 미니스톱(2593곳), 현대백화점(백화점 15곳, 아울렛 6곳)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가맹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는 높아지고 낮은 가맹점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등 사회적 후생은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주 기자

수은-LH,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강화

국내기업 수주확대 업무협약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사업 부문의 국내기업 수주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 사업에 관한 ▲공적개발원조사업과 투자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 금융 활용 ▲유망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이 담겼다.

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인도 도심 재개발사업 등 해외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

으로 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은은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과 풍부한 해외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경험이 있고, LH는 다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주 경험에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산업 지방문규 수출입은행(왼쪽)과 변창흠 LH 사장이 3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수출입은행, 신남방·신북방국가와의 지역개발 등 대외경제협력 측면에서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의 효



방문규 수출입은행(왼쪽)과 변창흠 LH 사장이 3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수출입은행

율적 운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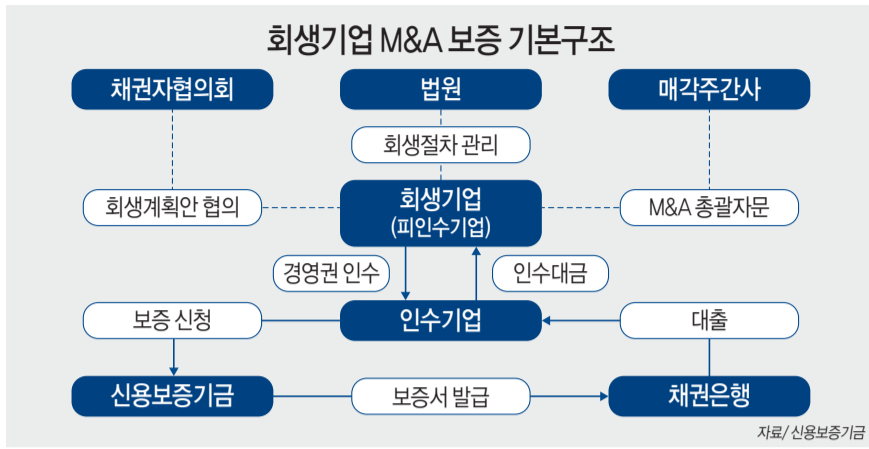
신보, M&A 인수자금도 보증

회생기업 인수추진시 32억 지원
기업 구조조정·경영정상화 견인
인수·회생기업, 채권자 '윈윈'

건설업을 영위하던 A사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A사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B사는 영업망 확대를 위해 A사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금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A사의 매각주관사로부터 신보의 회생기업 M&A 보증을 소개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결국 회생절차 내 M&A를 통해 A사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게 됐으며, B사는 영업망을 확충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회생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2개 기업에 총 32억원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



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지난해 9월 도입한 보증 상품이다.

이번에 신보가 지원한 기업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 회생기업, 채권자 모두의 윈윈(Win-win)이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 600억 이자 절감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p 인하
금리변동위험, 가산금리서 제외키로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대출이용자들은 연간 약 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가산금리 산정요소 조정을 통해 최소 0.3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이 6.74%,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이 4.30%에 달한다.

이중 가산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이 2.03%, 금리 연동형 계약이 1.50%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사는 8.34%, 중소형사는 6.29%, 외국사는 6.77%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 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가운데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 변동위험을 없애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시 보험계약대출을 금리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해서도 투자 기회 상실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총 47조원 가운데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은 18조 3000억원,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은 2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이자 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희주 기자

마이데이터 신청 116개사 중 절반 '금융사'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IT·CB·통신사 등 비금융사 뒤이어
8월 5일부터 사업 분허가 절차 진행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금융위

핀테크	금융회사(55개사)						비금융회사(41개사)		
	은행	여전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IT 등	CB사	통신사
20	12	10	17	11	4	1	36	3	2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에 총 116개 회사가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사전 수요조사에 총 116개 회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는 55개사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IT·CB사·통신사 등 비금융회사가 41개사(35.3%)였고 핀테크 기업이 20개사(17.2%)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수요조사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기업들은 기한 내 예비 컨설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마이데이터의 방향과 출시 예상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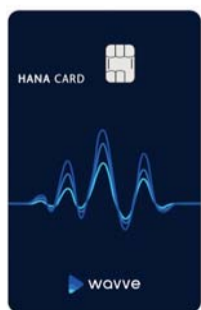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신한PIB센터에서 삼정KPM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신한은행 왕미화 부행장(왼쪽)과 삼정KPMG 구승희 재무자문 부문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카드 사용하고 웨이브 구독료 아끼세요” 새마을금고

2020년 상반기 직원 공채

실적 40만원 이상시 핀크머니 환급
커피전문점서 5% 청구할인 혜택



하나카드는 핀테크 전문 기업 핀크(Finnq)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문 기업인 콘텐츠웨이브와 함께 웨이브 구독료를 현금 출금 가능한 핀크머니로 돌려주는 '웨이브(wavve)카드(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3900원의 웨이브 구독료를 핀크머니로 돌려준다.

웨이브 카드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이용 시 7900원(베이직 상품), 8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3900원(프리미엄 상품)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핀크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등에서 결제 시 5% 청구할인(월 5000원 한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SK텔레콤의 주요 요금제를 통해 웨이브를 무료로 구독 중인 고객도 전월 실적 충족 시 무료 구독 중인 웨이브 구독료를 핀크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웨이브 카드는 핀크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입·신청할 수 있다. 거래내역과 적립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국내외 겸용 모두 2만5000원이다. /박미경 수습기자 mikyung96@

새마을금고가 2020년도 상반기 직원 공채 채용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새마을금고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입직원 채용규모는 전국 228개 새마을금고에 총 237명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인공지능(AI)기반 온라인 필기전형을 도입한다. 개인별로 지정된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된 PC, 웹캠, 마이크헤드셋이 필요하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신한銀-삼정KPMG 전문적 법인컨설팅 제공 '맞손'

신한PWM PIB센터, 기업가 자산관리 삼정KPMG, 다수 고객네트워크 보유 차별화된 자문업무, 자산관리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신한PIB센터에서 기업가 고객 대상 법인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정KPM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가 고객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PB(Private Banking)와 IB(Investment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모델인 신한PWM PIB센터를 신설해 기업가를 중심으로 자산관

리와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PWM은 국내 자산관리 1등 사업자로 다년간의 자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정KPMG 또한 다양한 투자금융(IB)업무를 주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가 등 자산가 고객의 법인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화된 자문 업무를 제공해 신한PWM만의 서비스 차별화 및 고객중심 자산관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재난지원금 들고 마트 대신 편의점行... 유통가 '히비'

대형마트 매출 전년비 15% 감소
고객 수 줄고 객단가마저도 하락
코로나19 초기때 보다 타격 커

GS25, 소고기 매출 194% 꺾음
대형마트, 대규모 행사로 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트를 찾는 고객 수가 감소한데다 객단가마저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달 13일 이후 주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이마트 주요 품목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19년 5월 15일~6월 2일)대비 한우는 -19%, 과일은 -18%



고객이 GS25에서 카드로 다양한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매출이 하락했다. 또, 채소는 -11%, 통조림은 -7% 매출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전체 12% 매출 감소율을 보였다. 카테고리 별로는 축산이 -10.2%, 수산 -4.5%, 대용식품 -19.4% 매출 하락세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흡플

리스 역시 비슷하게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과 식자재마트, 농협 등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동일 상품군을 취급하는 대형마트가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13조4582억원에 달한다. 시중에 풀린

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이끌었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코로나19 초기 때보다 큰 매출 하락폭을 겪고 있다.

◆마트의 묘안...쿠폰 주고, 할인하고!

이마트들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거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최근 수요가 증가해 몸값이 오른 한우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시중가보다 40~50%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는 전국 131개 점포의 임대매장(푸드코트 제외)을 이용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에 나섰다.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매장 영수증을 고객만족 센터에 제시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이마트에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번 쿠폰 증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 매장의 매출 활성화를 물론 고객에게는 쿠폰을 통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트대신 편의점에서 산다!

재난지원금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곳도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편의점의 결제 수단별 사용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카드(신용/체크/선불 포함) 결제 비중이 86.1%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카드결제 비중으로 전년, 전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1%p, 9.1%p 증가한 수치다. 카드로 풀린 11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고객 수요가 편의점에 몰리면서 카드 결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BGF리테일에서 운영하는 CU는 축산물 매출이 전월대비 58% 늘었다. 과일·채소 판매도 24% 증가했다. GS25에서도 소고기 매출이 194% 늘며 대형마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겨우 날개 뻗는데... 美 시위 격화에 항공사 '걱정'

대한항공·아시아나 미주 노선 재개
뉴욕 등 40여개 도시 야간통행 금지
탑승객 감소, 안전 위협 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놓인 양대 항공사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접었던 미주 노선을 이달부터 재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미주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선 가운데 일부를 운항 재개했다.

특히 지난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시카고 등 5개 노선에서 워싱턴,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등을 추가해 현재 9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는 각국의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객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에 대비해, 이달부터 국제선 전체 73개 노선 중 27개를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는 잠정중단했던 13개 노선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횟수를 57회 추가한 것이다.

그 가운데 미주 지역의 경우, 화물 수요 등을 고려해 시애틀 노선을 운항 77

일만에 운항 재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3개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두 항공사의 날개가 다시 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 미 전역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폭력 행위도 함께 벌어지면서 뉴욕과 LA 등 4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재개에 나섰다지만 시위로 인해 수요 감소는 물론 승무원 및 탑승객 등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의 이륙이 12시간 지연됐고, 같은 날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려던 화물기도 9시간 지연해 출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위로 인해 지상교통편 운영이 안 돼 승객들이 탑승하러 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이후 추가로 지연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아직 노선 운항 중단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연된 사례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며 "탑승객은 미주 노선 전체적으로 절반 좀 안 차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공영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추진
전담 'MLC사업부' 신설

공영쇼핑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LC사업부'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언택트 고객시대와 동영상 콘텐츠 확대 등 오픈마켓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MLC사업부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이는 공영쇼핑 애플리케이션 내 모바일 라이브 운영 화면 및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등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 주요 목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시간과 스튜디오 공간 등의 제약 없이 판매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콘텐츠로 고객에게 더욱 높은 친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

MLC사업부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소개할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MPD' 제도를 운영한다. MD(상품기획자)와 PD(방송제작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MPD는 윈스톱 상품 소싱 및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새롭게 시도하는 MPD는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밖에도 모바일 라이브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촬영, 쇼호스트, 교육 등을 지원하고, 공익 관련 공공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청부터 구매까지 윈스톱으로 연결되는 편의성, 판매자와 구매자 간 양방향 소통, 실시간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높은 구매를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회복탄력성 키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롯데 'HR 포럼'

유튜브로 첫 비대면 진행

롯데는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2020 롯데 HR 포럼'을 진행했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HR 포럼은 매년 전 계열사 인사·노무·교육 담당자들이 모여 그룹 HR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사 관련 이슈를 학습하는 등 롯데 HR 역량발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 유튜브 실시간 강연을 통해 HR 담당자 660여명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 HR 포럼의 주제는 'Resilience for the new normal (새로운 세상을

위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난관이나 큰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직과 개별구성원들의 빠른 회복탄력성 구비를 통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HR의 역할임을 공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롯데는 HR 담당자들이 회복탄력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준비했다.

기조강연은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목 서울대 교수와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 진행했다. 이경목 교수는 '위닝 스피

릿 (Winning Spirit) 강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의 증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위닝 스피릿의 조직내 확산을 위해 승리를 가르는 결정적 행동의 실행과 HR의 역할을 제안했다. 김경준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HR의 지향점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뉴노멀시대의 인재상, 회복탄력성과 소통능력의 리더십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한 해 효과적 HR 성과 관리를 통해 회사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계열사를 포상하는 'HR 어워드'를 진행했다. 롯데는 이를 위해 핵심인재 확보, 리더십 개발, 여성인재



롯데지주 송용덕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롯데지주

육성 등 다양한 지표로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은 대흥기획이 수상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리테일이 우수상을 받았다.

롯데지주 송용덕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주제는 HR"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언택트 인프라 3114억, 스마트펀드 2000억

중소벤처부, 추경 3.7조 용도는

1차 추경보다 6000억원 늘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95억

비대면(언택트)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조7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추경보다 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환경 확대 등을 위해 3차 추경안에 3114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곳에 공동화상회의 인

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까지 연결되는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위해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 온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판로 지원 플랫폼인 '가치샵시다'에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하는 작업에는 95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505억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 편성으로 스마트 물류·서빙·주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을 기존 1000개에서 6400여개로 확대하고, 수작업 공정에 기기 자동화,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작업장을 20개에서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반 스마트 공장도 하반기 20개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창업 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 반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대상 중소기업도 기존 2093곳에서 3836곳으로 확대된다.

지금 확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업보증기금을 통해서 2조6000억원이 출연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그린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중기부는 올해 2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그린 분야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린 분야의 선도 창업·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 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 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통합당 패싱? 21대 국회 개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준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배제하는 모습이다.

관례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이후 이뤄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2일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등과 함께 188명이 서명한 21대 첫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법에 따라 국회를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법안 심의에도 협조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원하는 데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자 이해찬 대표가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받아친 셈이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5일에 일방적으로 법에 없는 국회의장을 뽑고, 본회의를 진행하면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농식품부 '씨없는 수박' 유럽 등 글로벌서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골든 씨드 프로젝트(GSP) 사업으로 개발한 씨가 없는 '블랙보이'와 씨가 작고 적은 '달코미미니' 등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핵가족과 1인가구 확대, 생활수준 향상으로 세계 수박 시장은 열매가 작고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거나 적어 먹기 쉬운 수박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른 결과다.

3일 농기평에 따르면 GSP 사업에서는 세계 각 지역 수박 소비자 기호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수박 품종을 개발해 왔고, 그중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크기가 작고, 비교적 먹기 쉬우며 당도가 높은 수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사업 채소종자사업단에 참여하는 (주)파트너종묘는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과 씨가 작고 적은 수박 품종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21대 국회, 디지털법안 '규제 혁신' 조속 추진을"

중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법제화 절실 자금조달 위한 '일괄담보제' 도입을

비대면 분야 혁신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제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강력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1대 국회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혁신산업(디지털·비대면)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정상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 데이터시 등 기반산업 구축 법안 (디지털기반산업법, 인공지능산업법, 클라우드법) 2 스마트공장 법제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3 비대면 서비스 규제혁신 진료(의료법), 보험(보험업법), 에듀테크(이러닝법), 배송플랫폼(의료기사업, 변호사법) 4 플랫폼공정거래 기반 마련 (전자상거래법, 사이버몰 공정화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조달 여건 개선 일괄담보제(동산채권담보법) 2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환경규제 개선(화평법, 화관법) 노동규제 개선(근로기준법, 산안법) 3 리쇼어링 활성화 수도권 입지규제 등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경제자유특구법)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밝혔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동산·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원활한 자

금 조달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과 리쇼어링(본국 회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만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최우선 규제혁

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대 국회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의미 있는 규제 혁신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데이터 3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 법) 등이 도입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신사업과 중소기업 규제 법안 중 29.6%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김승호기자·백지연 수습기자

韓 산림생태계 복원 남북 공동거점 확보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개최

산림청은 3일 경기도 파주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북한과 가장 인접한 경기도 파주에 설치된 최초의 산림협력사업의 전진기지다. 묘목 생산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양묘장과 전시·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관리동 시설을 갖췄다.

준공식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지역주민과 특히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기반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 스마트양묘장 점검. /산림청

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비축과 남북공동 기술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이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산림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

"자발적 참여, 바이러스 막는 예방 백신"

文 대통령, SNS서 생활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중심으로 그치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며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15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인천 17명, 경기 12명, 대구 1명으로 신규 확진자 49명 중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

고 있다"며 국민에게 생활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밀폐·밀집·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3밀(밀폐·밀집·밀집)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리 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경민대-한양여대 등 10개 전문대 200억 지원, 평생 교육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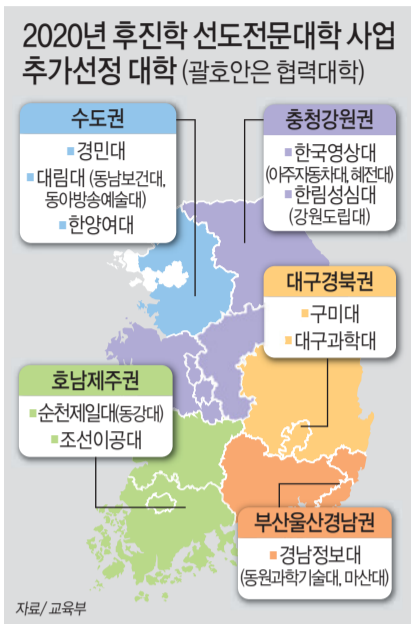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신규 선정
다양한 교육과정·지원계획 추진

정부가 지역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0개 전문대를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신규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은 전문대학에 산·학·관 거버넌스와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재직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대학이 선정됐고,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는 25개 대학이 신청



한 가운데 10개 전문대가 추가 선정됐다. 권역별 선정 대학은 수도권에선 경민대, 대림대, 한양여대가 선정됐고, 대구경북권에선 구미대, 대구과학대,

부산울산경남권은 경남정보대, 충청강원권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호남제주권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각 대학의 발전계획과 강점분야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이 추진된다. 이들 대학에는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교당 연간 10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경민대의 경우 '경기북부 AHA 플러스 전문직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림대는 '미래친화형 퓨처 잡 마스터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운영한다. 한양여대는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고, 한국영상대는 'ECO 혁신모델을 통한 지역 직업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육대 김일목 총장(오른쪽),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왼쪽) /삼육대

삼육대-원자력의학원, 전문 의료인력 육성 맞손 “노원구에 연구클러스터 구축”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 대비
의료인 양성·기술개발 협업**

삼육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일목 삼육대 총장과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은 2일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초연구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적극 협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삼육대는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첨단 방사선의학전문기관으로서 실습환경과 훈련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 학술연구 ▲학위과정 등 인력양성 ▲정기 세미나 등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적 고위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학·연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대표적인 종합대학과 의학연구기관인 만큼,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

단국대, 용인·성남 中소·예비 창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

용인시 6개사, 성남시 5개사 선정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용인·성남시의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최대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

3일 단국대에 따르면, 경기도(과학기술과)와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지역기반기업육성 지원 사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성남시 42개 기업을 발굴한다.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이달 1일 기준 용인·성남시에 본사를 둔 업력 만 7년 이상의 법인 기업(제조·서비스업) 중 3년간 매출이 20억원 이상



단국대 글로벌산학협력관 전경

이거나 상시고용인력이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 6개사, 성남시 5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용인·성남시의 예비창업자 또는 2017년 6월 1일 이후 창업(개인·법인)한 기업이다. 각 시에서 6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반도체부품, MEMS, IC 칩, IT디자인, SW 융합산업, 생명공학기술산업 등 용인·성남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ICT·SW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용인시에서 총 10개사를 선정해 1500만원 씩 지원하고 성남시에서 9개사를 선정해 2000만원 씩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연구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별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은 이달 16일까지 단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첫 하교 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초등학교 3~4학년 3차 개학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세종대, 수서역 승강장에 초대형 벽화 제작

SR과 승강장 벽화 개막식 진행

세종대 회화과는 최근 (주)SR과 수서역 승강장 벽화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대 배덕호 총장과 SR 권태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세종대 회화과 이강화 학과장, 벽화 제작 학생들, SR 안전본부장, 영업본부장,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작 동영상 상영 ▲양측 인사말 ▲감사제 전달 ▲기념촬영 ▲벽화 감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서역 6번 승강장에 제작된 벽화는 세종대 회화과 15학번 이지환, 김기찬, 서보민, 신종찬, 권봉균 학생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이번 벽화를 통해 SRT 이용객들은 일상 속에서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배덕호 세종대 총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권태명 SR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강화 회화과 학과장(맨 왼쪽)의 벽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대

있게 됐다.

벽화는 약 200m 길이의 초대형 사이즈로 제작됐다. 페인트를 활용하는 일반 벽화와 달리 목판에 유화를 칠해 독특한 색감을 보여준다.

특히 소나무 숲, 푸른 바다와 같이 지하의 콘크리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담았다. /이현진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여름휴가 계획 미정”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조사에서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9.1%의 직장인들만이 “여름휴가를 갈 것”이라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023명에게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직장인 9.1%만이 “올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가기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확산’ 탓이었다. 직장인들은 72.6%의 높은 응답률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복수응답 결과)’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故 김진구 하사, 67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한국전쟁 발발 70주기 맞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진행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가 지난 3일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진구 하사다.

6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진구 하사는 1928년 2월 20일 경북 영일군에서 4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3살 아들과 부인을 남겨두고 군에 입대했다.

고인의 아내 이분애 님(90세)은 “남편이 함께 처갓집을 가는 길에 업어주는 등 생전 남편의 다정한 면모와 함께한 추억의 애뜻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다”고 전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채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지난해 10월부터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이 격상됐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와 함께 거행하게 된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50사단장 등과 6·25 참전유공자회 등 6개 보훈단체가 참석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2020 퓨처푸드테크코리아 Future Food-Tech Korea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2020년6월24일(수) 14:00~17:30 |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홀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20)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2020 퓨처푸드테크코리아 (FFTK2020)
-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 일 시 2020년6월24일(수) 14:00~17:30
- 장 소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홀 (2호선 충정로역)
- 참가비 110,000원 *학생 참가비 무료 특전(학생증 지참)
- 주 최 메트로미디어
- 주 관 (주)에이커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정좌석제로 운영됩니다.
- ※ 현장등록이 불가하니, 사전등록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고 37.5도 이상일 경우 행사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및 오프닝
14:00~14:10	개막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14:10~14:40	기조강연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R&D센터장
세션1.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14:40~15:10	공유주방 & Beyond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국) 대표
15:10~15:40	푸드테크투자자와 미래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세션2. 포스트 코로나, 미래식품시장 선도할 혁신		
15:40~16:10	로봇바리스타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로봇바리스타
16:10~16:40	스마트팜(팜테크)	김혜연 엔싱 대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스마트팜 개념과 기술을 선보임.
16:40~17:10	건강 간편식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식물성고기 '언리미트' 출시 등

*세부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강연자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R&D센터장
(SEAA)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위국) 대표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김혜연
엔싱 대표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등록안내 | 참가신청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장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정좌석제로 운영됩니다.
- ※ 현장등록이 불가하니, 사전등록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행사 등록신청 버튼 클릭 후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등록
- 신청기간 2020년6월22일(월) 마감
10인 이상 단체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시 제출하신 메일과 휴대전화로 지정석 배정을 위한 참가확인 메일과 SMS가 발송됩니다.
정확한 이메일과 연락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계좌번호 1005-102-838186 우리은행 (예금주 ㈜메트로미디어)
- 문의처 2020 퓨처푸드테크코리아 사무국
㈜에이커스 02_6020_6833 | fftkgo@gmail.com

오시는 길

LW컨벤션 그랜드홀(3F)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청파로 464 (2,5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2시간주차권 제공



삼성 '청정스테이션' 獨 미세먼지 차단 인증

삼성전자가 제트 에어 청정스테이션도 미세먼지 등 배출 차단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3일 '청정스테이션'이 최근 독일 유력 시험·인증기관인 SLG와 영국 알레르기협회 BAF에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배출 차단 성능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청정스테이션은 삼성의 독자 기술인 '에어필스' 기술을 적용해, 삼성 무선 청소기 제트의 먼지통을 간편하게 비울 수 있는 먼지 배출 시스템이다. 에어필스는 모터의 입구를 제어하며 공기압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때 발생한 기



2020년형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와 청정스테이션.

류가 먼지통 내부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삼성 특허 기술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0년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1일 '해의 주재원 파견자 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기반 구축 지원을 목표로 경영 전략 수립부터 부문별 실무 노하우를 포괄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견기업은 최대 100%, 다른 지역 소재 기업은 최대 80%까지 교육비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격월마다 총 4회를 진행하는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과정은 해외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재원의 역할, 효과적인 현지 사업 관리 방안 등 현장 업무 역량 제고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유 키보드 5개사, 송파구와 안전운영 의지 다져

공유 키보드 5개사가 서울 송파구가 지난 2일 주최한 '공유전동 키보드사 간담회 및 안전 결의 대회'에 참석해 안전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씽씽 윤문진 대표가 공유 전동 키보드 참여 5개사를 대표해 송파구 '안전 운영 결의문' 낭독하고 있다. /썬싱

공유 키보드 5개사가 서울 송파구가 지난 2일 주최한 '공유전동 키보드사 간담회 및 안전 결의 대회'에 참석해 안전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씽씽 윤문진 대표가 공유 전동 키보드 참여 5개사를 대표해 송파구 '안전 운영 결의문' 낭독하고 있다. /썬싱

'호국보훈의달' 롯데호텔, 감사마음 준비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 마련

롯데호텔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숨은 영웅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디어 히어로즈' 패키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롯데호텔 17개 전 체인(시그니엘/롯데호텔/롯데시티호텔/



L7호텔)에서 선보이며, 롯데호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투숙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에몬스, 드라마 '한번다녀왔습니다' 지원

에몬스는 현재 전체 시청률 1위로 고공 행진중인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작 지원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전국 30.9% (닐슨코리아 제공)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돌파해 지상파는 물론 종합편성, 케이블 등을 통틀어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번 드라마의 제작지원에 나선 에몬스가구는 극중 송가희(오윤아 분),



송가희 역(오윤아 분) 침실을 장식한 클레어 침실시리즈.

송다희(이초희 분)의 침실공간에 클레어 침실시리즈와 스타일리쉬 그레이 침실시리즈 등 주요공간에 다양한 제품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우리에게 앨런 머스크는 없나



윤 위 중의
잠시 살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온통 우울한 사건 투성이인 가운데, 모처럼 밝은 소식이 우리 귀를 번쩍 띄이게 만들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22분(현지시간)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로 잘 알려진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민간인을 태운 '크루 드래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려 도킹까지 성공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주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급인력, 안보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인이 추진한다는 것은 꿈도 못꿨던 분야였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남들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꿈을 키웠고, 마침내 성공의 축배를 들 수 있게 됐다.

1971년생인 머스크는 24세에 집투(ZIP2)라는 회사를 창업해 1999년 컴팩에 매각한 뒤 돈을 만졌다. 그 뒤 엑스닷컴이란 기업을 창업해 다시 이베이에 매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자금을 무기로 머스크는 인터넷, 우주공

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민간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 역시 2002년 6월에 머스크가 설립한 세번째 회사다.

이쯤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있다. '한국에는 왜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없나'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혁신이 없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앨런 머스크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창조적 파괴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다. 그런 이력 때문인지 머스크의 꿈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머스크는 시속 1000km가 넘는 초고속자기부상열차 하이퍼루프나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연료 비행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프로젝트 등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분야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업 초반 그가 벤처기업을 매각하며 벌어들인 돈이 그의 꿈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밑천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에게 '모험정신'이 사라진 것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2000년대 초

반부터 포털, 게임 등의 분야에서 부를 일군 이들은 지금 웬만한 대기업을 우습게 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최근 코로나19로 게임 등의 벤처기업 시가총액은 국내 10대그룹 상위 기업들보다 많을 정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에게 혁신과 도전은 사라졌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규제·견제 탓도 있겠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게임의 사행성, 포털의 독과점 논란 등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창업 1세대들은 전문경영인들을 앞에 내세우고는 은둔의 삶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들이 처음 만들어 성공한 사업 아이템 이후 '혁신'에 가까운 신규 아이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에겐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자본과 인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굴뚝산업에 종사해 온 전통적인 '재벌'들보다 못한 게 현실이다. 한 때 젊은 예비창업자들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을 롤모델 삼아 실패를 두려워않고 창업 현장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예비기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선배들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산부잡자 yjh@metroseoul.co.kr

KB국민은행, 적십자회비 3억원 기부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 활용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동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적십자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와 어르신, 다문화 가족, 국내외 재해 이재민, 북한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서울 마장동, 경기도 성남, 강원도 춘천 및 광주광역시에 '사랑의 빵 나눔터'를 조성해 왔으며, 매월 임직원들과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제빵 봉사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

으면 좋겠다"며 "전달한 적십자회비를 통해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뉴스핌 △유통부동산부장(부국장) 김정태 △정치부 외교담당 선임기자(부국장) 이영태 △사회문화부장 김동선 △산업부장 이강혁 △사회문화부 정책팀장 오승주 △사회문화부 선임기자 김세혁 △유통부동산부 차장 이동훈 △사회문화부 차장 김용석 김연순 박준형 △증권부 차장 김신정 △산업부 차장 김지나 김선엽 △미래산업부 차장 정경환

◆한국정경신문 △IT과학부장 겸 디지털머니부장 김진욱

◆뉴스웨이 △이성인 뉴미디어부 부장대우 △안만 뉴미디어부 부장대우 △정백현 정경부 차장 △이어진 산업부 차장대우 △장기영 정경부 차장대우 △이지숙 산업부 차장대우 △김선민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홍연택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박영호 온라인개발부 과장

장대우 △김선민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홍연택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박영호 온라인개발부 과장

부음

▲홍순우씨 별세, 홍성희(울지대학교 총장·의료법인 울지병원 이사장)·홍정욱(카리스트 교수)·홍상욱(사업)씨 부친상, 박준영(울지재단 회장)씨 장인상 = 3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2275-3101

▲이기화씨 별세, 안인규(충북 진천경찰서 정보계장)씨 모친상 = 3일 오전 6시 40분, 진천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43-532-4405

▲류기준(전 영광초 교장)씨 별세, 류선경(전 수피아여중 교사)·혜경(서광병원 원장)·종선(전 신한은행 지점장)·경주(서광병원 경영원장)·상욱(서광병원 정형외과 원장)·상완(순천 성가톨릭병원 흉부외과 과장)씨 부친상, 윤창현(전 현대종합상사 호남지사장)·서해현(서광요양병원 원장)·김규성(주식회사 예오 대표)씨 장인상, 이일지·윤미경·허병영(서울 삼성의료원 마취과 교수)씨 시부상 = 3일 오전 4시 15분, 광주 서구 천치장례식장 2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062-527-1000

▲김정돌씨 별세, 김상우(청구건설 대표)·상업(태양건설 대표)씨 부친상 = 3일 오전 1시 23분, 대구 동구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201호, 발인 5일 오전 6시. 053-961-4444

“집에서 간편하게... 홈술족 잡아라” HMR 안주대전

안주 HMR시장 7000억원 규모
요리형 1200억 ‘냉동제품 위주’
청정원 ‘안주야’ 시장 50% 점유
동원F&B·이마트 등 2위 쟁탈전



CJ제일제당 제일안주 4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홈술’ 문화가 확산하자 이 수요를 잡기 위한 가정간편식(HMR) 상온 안주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식품사들이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는 데 HMR이 1등 공신이었던 만큼, 지난해 4조원 규모인 HMR 시장에서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홈밥·홈술’ 트렌드가 계속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니즈로 이어지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HMR 시장이 더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홈술·홈술족’ 증가로 냉동안주에 더해 보관까지 용이한 상온안주 시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주 HMR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7000억 원으로 요리형 안주와 마른안주로 나뉜다. 이중 요리형 안주 시장 규모는 1200억 원이지만 아직까지는 냉동 제품 위주로 형성돼 있다.

냉동안주 HMR 시장은 청정원의 안주 전문 HMR 브랜드 ‘안주야(야)’가 시장 점유율을 50% 차지하고 있으며, 동원F&B의 ‘심야식당’, 이마트의 ‘안주당’, 오투기 ‘낭만포차’ 등이 10%대를 기록하며 2위 쟁탈전을 하고 있다.

업계 1위 대상 청정원은 ‘안주야’로 2016년 냉동 안주 시장 개척에 성공하더니, 최근에는 ‘통마늘 모듬곱창’ ‘매콤 제육오돌뼈’ ‘매콤 껌데기’ 등 상온

제품 6종을 내놓으며 상온 안주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청정원이 상온안주 제품을 선보인 것 냉동 제품에 집중돼 있던 안주 HMR 시장의 적극 확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HMR시장의 강자 CJ제일제당도 발을 들여놓으면서 상온안주 HMR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신규 브랜드 ‘제일안주’를 론칭하고 소양불마장·순살불닭·불데지껍데기·매콤알찜 등 4종을 출시, 상온 HMR 안주 시장에 진출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껍데기’와 ‘비비고 국물요리’ ‘비비고 죽’ 등 상온 간편식 제조로 쌓아온 연구개발 노하우를 통해 원물을 살리고 신선도를 유지했다고 설

명했다. 기존 ‘비비고’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한 것과 관련해 CJ제일제당이 제일안주 브랜드를 비비고만큼 거대한 브랜드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식품업체들이 상온안주 HMR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생활 트렌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인가구, 맞벌이가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냉동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냉동HMR 제품은 레드오션이 됐다. 하지만 출시된 제품이 적어 경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코로나19로 인구가 밀집한 곳을 피해 캠핑 등 외곽으로 야외활동 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HMR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냉동안주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 휴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상온HMR 제품은 멸균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실온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다. 전자레인지 외 끓는 물 등으로 조리할 수 있어 HMR 제품의 최대 장점인 편리성을 살릴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독보적인 상온 간편식 기술 기반으로 HMR 시장 패러다임을 바꿔왔듯, 상온 안주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끌어올리고 시장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청정원 ‘안주야’ 상온안주



모델들이 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활어 회 배달 서비스 ‘홈플러스 어시장’의 모바일 론칭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활어회 당일 무료배송

바다자리와 맞손 ‘홈플러스 어시장’ 론칭
서울·인천·경기 일대 대상 서비스

그야말로 ‘배달’의 시대다. 퇴근 후 싱싱한 활어회 한 접시가 먹고 싶다면 이제 퇴근길 노랑진 수산시장까지 다녀오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배달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시장 상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안겨주는 배달 전문 앱이 아닌, 대형마트 모바일 쇼핑물 앱에서도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것도 배달팁 없이 ‘무료’로 배송을 받으면서 말이다.

홈플러스는 수산물 전문기업 ‘바다자리’와 손잡고 활어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홈플러스 어시장’을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홈플러스 어시장’은 대형마트의 모바일 쇼핑물 앱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형 서비스다.

고객이 오후 2시 전까지 홈플러스쇼

핑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 상품을 주문할 경우 ‘바다자리’가 지정한 노랑진수산시장 내 상점에서 직접 회를 뜬 후 포장해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한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일부 지역(광명, 안양, 부천, 과천, 성남, 김포시, 일산, 수지)에 한해 운영되며,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오후 6~8시에 별도의 쿠키서비스 운송 비용이나 배달팁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다. 주말 배송을 원한다면 금요일 오후 3시 전까지 배송일을 지정해 주문하면 된다.

‘홈플러스 어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메뉴는 ▲노랑진 초신선 모듬회 소(2~3인분, 7만4000원) ▲노랑진 초신선 모듬회 중(3~4인분, 8만4000원) ▲노랑진 초신선 모듬회 대(5~6인분, 10만3000원) ▲노랑진 초신선 모듬회 특대(7~8인분, 13만원) ▲노랑진 랍스터 모듬회(9만4000원) 등 총 5종이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몸값 오른 한우 40% 저렴하게 맛보세요”

10일까지 행사카드 결제 할인행사
물량 총 70톤... 상반기 ‘최대규모’

최근 수요 증가에 몸값이 높아진 한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마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행사카드(이마트·삼성·KB국민·신한·현대·NH농협·우리·씨티카드)로 구매시 한우 전품목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를 선보인다. (행사카드 30%, KB국민카드 추가 10%)

이번에 준비한 행사 물량은 약 70톤이며 이는 평상시 2~3주간 판매하는 수준의 물량이다. 소비자 가격 환산시 60~70억원에 달하는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한우 행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30 피부 기본관리 ‘코어 소비’ 뜬다

CJ올리브영 ‘올영세일’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피부나 건강을 기본부터 충실히 관리하려는 ‘코어(Core)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다.

CJ올리브영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올해 첫 대규모 정기 세일 ‘올영세일’을 진행중인 가운데, 매출을 중간 집계(5월 29일~6월 2일, 전년 동일기간 비교)한 트렌드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세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품군은 스킨케어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쓰이는 토너다. 토너는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대표상품으로는 최고 인기 부위인 ‘한우 등심 1등급·1+등급(100g)’을 행사카드 결제시 기존 1만800~1만2700원에서 각 30% 할인한 7560~8890원에 판매한다. 특히 KB국민카드 구매시 추가 할인해 총 40% 할인된 각 6480·7620원에 판매한다.

‘한우 국거리, 불고기 1등급·1+등급(100g)’은 행사카드 결제시 기존 5700~6700원에서 30% 할인한 3990~4690원에 구매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구매시 총 40% 할인 가격은 3420~4020원이다. 이마트가 이처럼 대규모 한우 행사를 선보이는 이유는 최근 한우 시세가 고공행진해 소비자들이 한우 구매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투기 ‘진짬뽕+진짜장’
짜장라면 ‘진진짜라’

오투기가 진짬뽕과 진짜장을 조합한 매콤한 짜장라면인 ‘진진짜라’를 용기면으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진짜라(사진)’는 오투기의 히트제품인 ‘진짬뽕’과 ‘진짜장’을 최상의 비율로 조합해 탄생시킨 매콤한 불맛짜장이다. ‘진짬뽕’의 화끈한 불맛에 진하고 깊은 ‘진짜장’의 풍미가 어우러진 제품으로, 두껍고 넓은 면을 사용하여 쫄깃하고 탱탱한 중화면 특유의 맛을 살렸다. /조효정 기자



롯데마트
인기상품 특별행사

롯데마트가 코로나19로 지친 고객들을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인기상품 특별행사’를 준비해 선보인다.

먼저, ‘한우 1등급 등심(100g·냉장·국내산 한우고기)’과 ‘한우 1+등급 등심(100g·냉장·국내산 한우고기)’을 기존 판매가에서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선보인다. 기존 각 1만 1000원과 1만 3200원에 판매하던 한우를 옐포인트(L.POINT) 회원을 대상으로 각 7700원과 9240원에 판매하며, 해당 카드(롯데·신한·KB국민·NH농협)로 결제하면 각 5470원과 656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원은미 수습기자 silverbeauty@

QR코드로 제품설명... AR 메이크업... 대면 없이 뷰티체험

롯데백화점, '아모레스토어' 오픈
7개브랜드 1400여 가지 상품 체험
샘플메뉴판, 마이픽서비스 등 차별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아모레스토어

/롯데쇼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근 언택트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언택트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뷰티 매장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과 롯데백화점이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오는 5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아모레스토어'를 오픈한다.

'아모레스토어'는 롯데백화점과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뷰티 매장이다. 약 165㎡(50평) 공간에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구달과리를 비롯해 새롭게 출시한 에스테틱 브랜드 홀리추얼,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 등 총 7개 브랜드의

1400여 가지 상품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다.

우선, 개방형 구조의 뷰티바인 '언택

트존'을 구성해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 고민별, 색조, 신제품 등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으며, 직원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QR코드를 통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AR 증강현실 메이크업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장 내 디바이스에 얼굴을 촬영한 후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화면 속 자신의 얼굴에 메이크업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품을 자유 자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색조 화장품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 없이 좋은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 대신 샘플을 골라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샘플 메뉴판'을 마련, 원하는 제품의 샘플을 세 가지씩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한 크리에이터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딥 카운셀링' 서비스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뷰티 스페셜리스트가 매장에 상주해 고객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제안해주고,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제품도 다양하게 추천해준다. 또한, 앱을 통해 사전 예약 시 1:1 메이크업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마이픽 서비스', 매장 설명 및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 등 차별화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오픈을 기념해 6월 한달 동안 경품, SNS 이벤트, 향수 시향회, 사은품 증정 등 주차 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전개한다.

롯데백화점 정수연 치프바이어(Chief buyer)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뷰티 매장을 선보이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매장을 선보이게 된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셀트리온-풍림파마텍, 40억 규모 국책과제 선정

품질·가격 경쟁력 갖춘 '국산 1호' 만든다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올해 개발 시작
원가 경쟁력 갖춰 수입제품 의존도 ↓



셀트리온 2공장

셀트리온이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셀트리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개발 국책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료기기 전문기업 풍림파마텍과 함께 이번 과제 대상자에 최종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인슐린 제형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 등을 맡고, 풍림파마텍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리필드 펜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사업규모는 4년간 총 40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국책과제 평가위원회는 양사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과 그동안의 사업성과 및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양사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해 오던 글로벌 인슐린 펜형 주사제 시장에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겸비한 '국산 1호' 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제제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사는 1회 최대 80유닛(Unit)까지

투여 가능한 펜형 주사제를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주사방식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고, 4년 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상업화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 자재를 활용한 최초의 국산 인슐린 펜형 주사제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인슐린 시장의 96%는 오리지널 3사(사노피, 릴리, 노보노디스크)에 의한 극단적 과점점 상태로 바이오시밀러 또한 사노피와 릴리가 서로 합당한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인슐린 시장 역시 노보노디스크가 45%를 점유하는 등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셀트리온은 국산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주사요법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승훈씨(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박은애 소아청소년과 교수(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유경하 이화의료원장(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기부 약정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20년전 목숨 구한 신생아... "기부로 보답"

건강한 성인돼 이대목동병원 방문
킵보드 판매 수익금 일부 기부

20년 전인 2000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구한 신생아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 병원을 다시 찾은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스무살인 이승훈씨가 지난 2일 병원을 찾아 기부금 약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년 전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중증 질환이 있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을 찾았고, 당시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박은애 교수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김영주 사회공헌부장,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등 경영진은 물론, 당시 주치의였던 박은애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 씨의 아버지 이대진 클래식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세경 기자

맘스터치 가격 인상에 "가성비버거 옛말"

"굳이 맘스터치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햄버거 체인점 '맘스터치' 종각역점에서 만난 박모씨(24)는 해당 업체의 일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요즘(햄버거) 다 비싸지만 버거킹 같은 곳이 '사팔라' 등 점심 할인을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영등포역 지점에서 만난 송현후(34)씨도 "맘스터치가 가성비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밝혔다. 가격이 올랐을 때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최근 햄버거 전문점 맘스터치의 일부 메뉴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맘스터치는 대표 메뉴 가격을 싸이버거는 400원 올린 3800원, 불싸이버거는 300원 올린 3900원으로 바꿨다. 세트 메뉴는 단품에서 2000원 올린 가격으로 일괄 조정했다.

이에 관해 해마로푸드 측 관계자는 "이번(인상) 조치가 2년 4개월여 만이었다"면서 "다른 햄버거가 1년마다 가격을 바꾼 것에 비하면 드문 편"이라고 설명했다. 세트 메뉴의 경우 "특정 제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트 가격

의 로직을 표준화해 세트 메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세트가를 버거 단품 가격에서 2000원을 추가 일괄 적용해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 제품의 수가 더 많다"고 부연했다.

가격 상승 및 메뉴 개편으로 맘스터치의 주무기를 잃고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매 전략으로 과거의 명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효정 기자, 원은미 수습기자 silverbeauty@



롯데푸드, 케어푸드와 성인영양식시장 '출사표'

'파스퇴르 케어푸드' 연구·개발 협약

롯데푸드가 지난 2일 케어푸드연구회와 '파스퇴르 케어푸드' 공동 연구 및 개발 협약을 맺고 케어푸드 사업을 본격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케어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푸드'와 식이요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케어푸드연구회'가 손을 잡고 크게 확대되고 있는 케어푸드 시장에 전문적인 성인영양식을 본격 개발하여 출시한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케어푸드는 연하식(씹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 연하식(삼키기 편한 음식)

등 특화된 기능을 갖춘 식품을 말하는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시장규모를 2020년 기준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육이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이나, 특정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사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푸드와 케어푸드연구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백질 및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는 '성인영양식' 형태의 제품을 비롯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심혈관 계열의 '기능성'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롯데칠성,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무관중 개최

세계 1위 고진영 등 정상급 골퍼 참가

롯데칠성음료가 6월 4일부터 4일간 제주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에서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가 주최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을 포함해 김세영, 이정은, 김효주, 배선우 등 정상급 골퍼 총 135명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원 증가했고, 우승자에게는 지난해보다 4000만 원 증가한 1억6000만 원 상금에 3000만 원 상당의 시계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대회는 4라운드로 진행되어 3라운드였던 지난해 대회보다 변별력 확대와 함께 골프팬의 볼거리를 더했고, 연습일도 이틀로 늘어



(왼쪽부터) 배선우, 이소영, 김효주, 고진영, 최혜진, 김세영, 김보아, 박현경 선수 총 8명 /롯데칠성음료

나 선수들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는 SBS골프 채널을 포함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올레TV, LG유플러스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며 매일 클럽하우스 방역을 실시하고 별도 공간에 격

리 텐트도 마련한다. 선수 및 캐디는 매일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필드를 제외한 전 구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회 관계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인원 최소화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치열한 수주전쟁



기자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서울 재건축 수주의 '슈퍼워크'가 지나며 각 정비사업장의 시공사들이 정해졌다. 그 중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대어'로 불린 반포주공1단지 3주주 재건축 사업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의 2파전이 전개됐다.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두 회사가 펼친 수주전은 정치권의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지만 깨끗하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지난 28일 반포3주주 재건축 사업의 주인공이 결정되기 전 양사가 설치한 홍보관을 방문했다. 각 홍보관에서는 상대 회사가 내세운 특장점을 깎아내리며 자사의 장점을 어필하고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의 재산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각 회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충분히 살피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양사는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 입찰조건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신경전은 홍보물 배포 건을 두고 고소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클린수주시범사업

장 1호로 지정된 반포3주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이었다.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에서도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현대건설 측에 홍보지침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

조합이 각 시공사에 배포한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합동설명회 이외에 입찰자의 임직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정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는 인터넷 홍보도 개별적인 홍보로 간주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불법 홍보와 제안 위법성 시비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입찰이 무효가 돼 올해 재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조합원들은 신뢰감을 주는 건설사를 원한다. 부정행위 없이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건설사야말로 표심을 얻게 될 것이다.

/ywj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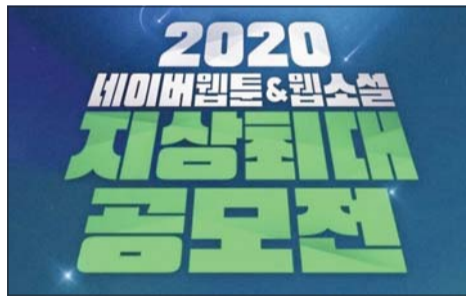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 총 상금 15억

네이버웹툰이 주최하는 '2020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의 웹툰 분야가 1일부터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

2020 지상최대공모전은 총상금 15억원 규모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웹툰과 웹소설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네이버웹툰·네이버 시리즈 등의 공식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할 수 있으며 상금, 작품 매니지먼트의 혜택에 더해 2차 저작물로의 가능성을

넓힐 기회를 제공받는다. 2020 지상최대공모전 웹툰 분야 1기는 오는 14일까지, 2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기 7월 24일, 2기 11월 13일 발표된다.

2019년 처음 개최된 지상최대공모전 수상작 대부분은 현재 연재를 진행 중이다. '저승사자 출입금지(글/그림 심웅섭)', '강남도깨비(글 이경민/그림 송준혁)', '닭강



정(글/그림 박지독)' 등 웹툰 부문 1기 수상작은 연재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기 부문 수상작도 대부분 인기리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4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는다. **48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다. **60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한걸 수월하다. **7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84년생** 신용 있는 인맥으로 좋은 일을 찾게 된다.
- 37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49년생** 밝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선날. **61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진행해도 무방. **73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 **85년생** 무슨 일이든 형편에 맞춰서.
- 38년생** 무관심이 오히려 좋은 결과. **5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때가 무르익었다. **62년생** 직장에서 좋은 일로 연락이 온다. **7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잊지 말라. **86년생** 환상을 현실과 혼동하지 말도록.
- 39년생**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51년생** 엉켜있던 실태가 잘 풀린다. **63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75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 **87년생** 가까운 사이여도 예의를 지켜라.
- 40년생** 향기 없는 꽃에 취해 지갑이 털린다. **52년생**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운 것도 없다. **64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76년생** 재물이 많아도 외로움은 여쩍 수 없다. **88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 41년생**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판단하라. **53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 변명만 보인다. **65년생** 열심히 노력하니 운도 저절로 따라온다. **77년생** 뒷사람이 조언이 늘 도움을 준다. **89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 42년생** 나보다 열배 훌륭한 자식임을 깨닫는다. **5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마음이 불편. **66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78년생** 부족함이 있어도 떠들지 말자. **90년생** 머리가 맑으니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자.
- 43년생** 아저들은 말도 기억을 못 한다. **55년생** 오랜 친구에 부음을 듣게 된다. **67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주의. **79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91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큰 세상을 모른다.
- 44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결과가 좋다. **56년생** 신선한 먹거리를 선물 받는다. **6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하루. **8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2년생** 힘든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 45년생**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유발. **57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히 행동. **69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8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3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 46년생** 갈팡질팡 마음이 어지럽다. **58년생** 성공을 원하면 사람 사귀에 능해야 한다. **70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 **82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노력. **94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말자.
- 47년생** 작은 이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59년생** 매사 부드럽게 상대를 포용. **71년생** 의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83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95년생**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김상회의四季

마음의 카페

현대인들에게 카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시내 어디에나 카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페는 반가운 휴식 공간이다. 바쁜 걸음을 내딛다 한숨 돌리기 좋고 반가운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 나눈다. 필자도 카페를 이용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은 월광사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무실이 마치 카페 같다.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필자의 사무실은 사실상 카페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월광사 사무실은 세대 구분 없이 즐겨 찾는다.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고단한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휴식을 찾는다. 카페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는 것처럼 마음을 쉰다. 닥쳐온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노력으로 얻은 행운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함께 방안을 찾는다.

그렇게 해결방법을 찾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세찬 비를 막을 수 있는 적당한 계획을 준비하면 안심하는 마음을 얻는다.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정겹거나 힘겨운 마음을 내어놓는다. 이런 공간이 마음의 카페일 것이다. 세대에 따라서 고민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인다.

40대와 50대는 사업문제, 자식 걱정이 주를 이룬다. 20대와 30대는 이성 친구가 언제 생길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고 결혼에 관한 고민과 취업에 관한 걱정을 얘기한다. 어느 세대가 되었든 자기가 살아가는 나이가 주는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고 모두 편안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제이: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도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5			2 6				
	6 9			4			8
	3 7						2
1		2		4			6
	9						4
3				5		9	7
	4					7 6	
9			1			8 5	
			8 3				2

8	9		3 B			A	
	5			4 7		2	
6	4		A			B 1	
	3 7			C		4 B	
B 6			8 5		A		1
4			1		9 6	8	
	3 1 8			A			5
7		4	6 2			A B	
	A C	7			8 4		
5 7				B		9 A	
4	A 7					8	
	2		4 A			3 C	

정답

2	6	1	8	7	5	4	9
7	5	8	9	4	1	2	6
9	4	5	2	3	6	7	8
4	1	6	2	5	9	7	8
5	7	4	8	9	6	1	3
9	8	3	7	1	2	5	4
1	2	9	8	6	5	4	7
8	4	5	7	1	2	6	9
6	9	7	4	8	3	1	5

2	4	1	8	7	5	9	2	6	3
9	5	8	3	6	2	4	7	1	8
4	7	6	2	5	9	8	1	3	7
1	2	9	8	6	5	4	7	3	1
8	4	5	7	1	2	6	9	3	7
6	9	7	4	8	3	1	5	2	8
1	2	9	8	6	5	4	7	3	1
8	4	5	7	1	2	6	9	3	7
6	9	7	4	8	3	1	5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62호

대통령·앵커·아이돌도 ‘진짜처럼’... 국내 첫 AI 모델

AI 기업인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등장한 김현욱 아나운서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AI) 앵커는 실제와 흡사해 AI 기술이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보여줬다. AI 앵커를 만든 회사는 AI 영상 합성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머니브레인이다. 앞으로 AI 쇼호스트와 AI 아이돌까지 선보여 ‘국내 최초’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머니브레인은 지난해 7월 개최된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AI로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이 합성해 연설한 것이 큰 화제가 됐다. 이 내용이 방송에 소개되고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AI 영상 합성 사업을 본격화한 것.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AI 합성 영상을 본 후 우리도 고품질 영상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해 문재인 대통령을 AI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은 학습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영상이 많아 작업이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 개막식에서도 AI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합성 영상 제작에 보통 5~10시간의 영상이 필요한 것을 박 장관의 영상에서 2시간 정도 데이터만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어교육 서비스 ‘스픽나우 키즈’ /머니브레인

서울대 전기공학부 재학 중에도 창업을 목표로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15년 전에 창업한 회사도 AI와 관련이 있었다”며 “자동차에서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머니브레인 이전에 3개의 기업을 창업해 2개 회사를 엑시트했다.

‘알파고’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가 AI 에이전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16년 머니브레인을 창업한 계기가 됐다. 현재는 ‘대화형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AI 챗봇은 물론 AI 뉴스, AI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서울아산병원 등에 챗봇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다수의 AI 기업들이 영상 합성 분야에 포진해 있지만 AI 음성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3D를 영상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얼굴 특징 추출, 피부 합성, 감정 표현을 위해 자체 기술을 개

특징 추출, 피부합성, 감정표현 등 기술 개발... 신경망 학습통해 제작

AI앵커, 텍스트 300자 1분내 완성 사람들이 AI라는것 알아채지 못해

투자금 91억 ‘스픽나우’ 마케팅 총당 중 법인설립 중...美·日 진출 ‘시동’



장세영 머니브레인 대표

발했고, 신경망(CNN) 학습 등을 거쳐 실제 사람을 닮은 AI 모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I 영상·음성 합성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오픈, 일본 스펙티 등 총 4곳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구현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AI앵커도 최대 300자의 텍스트를 1분 안에 영상으로 빠르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AI 앵커는 사람들이 AI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맞느냐’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해 뿌듯합니다.”

머니브레인은 또 2개월 후 한중편 방송을 통해서도 AI앵커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쇼호스트도 선보이기 위해 홈쇼핑 방송사와 논의 중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AI 쇼호스트가 모바일 커머스 등장에 방송을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앱을 자체적으로 론칭할 예정

입니다.”

장 대표는 AI 아이돌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 한류스타를 AI로 만들거나 ‘아담’과 같은 가상의 AI 연예인을 개발하는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머니브레인은 최근 ‘에듀테크’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VR(가상현실) 분야에서 KT와 협력해 VR기기용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있다. 자체 서비스 중인 ‘스픽나우’는 스마트기기로 앱에 접속해 AI튜어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알림을 해주고, AI 출처체크 기능도 있어 얼굴인식으로 본인이 맞는 지 체크합니다. 특히 샘 해밍턴, 샘 오취리 등 유명 방송인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AI로 제공하다보니 학습자들이 재미있어합니다.”

코로나19로 학원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많아지면서 스픽나우는 매일 매

출이 전달 대비 2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4월에는 3세~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픽나우 키즈’도 선보였다.

머니브레인은 지금까지 91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스픽나우’의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 특히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인 IDG캐피탈에게 받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 사업도 준비 중이다.

“중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처럼 AI 앵커와 AI 교육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와 중국에서 사업화에 성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또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머니브레인의 AI 영상 합성 기술이 나쁜 AI인 딥페이크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만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딥페이크 검출 기술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딥러닝 모델 ‘AI 페이크 파인더’를 내놓을 계획이다.

“저희는 ‘AI가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를 준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AI 기술을 확대해 쇼핑, 화상회의,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방송, 금융 등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는 머니브레인을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간단한 조종, 휴대 쉬워 입문용으로 딱!

구기자의 뜬구르방

DJI 드론 ‘매빅에어2’

출발위치로 복귀 ‘리턴투홈’ 유용 ‘접이식 프로펠러’ 휴대·보관 장점

교외에 나가면 머리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을 종종 마주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이 일상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대목이다.

DJI가 지난 11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 신제품 드론 ‘매빅 에어2’를 체험해 봤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드론을 날려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조종법은 간단했다. 조종기 전면에 위치한 두개의 조이스틱으로 방향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에 전원버튼과 리턴투홈 버튼, 모드 선택 버튼이 있다.

안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드론 작동법을 숙지한 후 먼 거리까지 드론을 이동시켰다. 드론이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드론의 위치와 드론의 시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을 원래의 출발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턴투홈 기능은 초보자에게 굉장히 유용했다. 착륙하는 위치도 거의 정확했다. 매빅 에어2는 프로펠러를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드론으로 휴



매빅 에어2 기체 모습. /구서윤 기자

대와 보관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매빅 에어2의 촬영 성능은 대폭 향상됐다. 카메라 센서 크기를 키웠으며 8K 영상 촬영도 지원한다. 소니의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매빅 시리즈 최초로 4K 60프레임, 120Mbps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매빅에어2는 570g으로 가벼운 소형 드론에 속하는데 가벼운 무게에 비해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줬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기체가 흔들리긴 했지만 제자리를 찾아왔다. 장애물도 감지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

저렴한 입문용 드론이 많긴 하지만 꾸준한 취미로 고품질의 사진과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할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매빅 에어2 가격은 99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수백억 투자유치... AI기업 ‘코스닥 노크’

알체라 얼굴인식분야... 10월 목표
솔트룩스 챗봇 등 성과... 내달 상장
뷰노 의료데이터 학습·제품화 등
다음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업들이 IPO(기업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하반기부터 대표 AI 기업들이 차례로 코스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I대표기업인 솔트룩스·뷰노·알체라·다음소프트는 물론, AI 신약 개발사 스탠다임, AI 기반 3D프린팅 의료기기업체인 애니메디솔루션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수백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AI에 투자 자금이 풀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AI 일등국가 원년’을 목표로 세울 정도로 AI 도입이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AI 얼굴인식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알체라는 최근 신영증권에 주관사로 성장성추진특례상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알체라는 오는 10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알체라는 2018~2019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실시한 얼굴인식벤치마크(FRVT)에서 안면인식 분야 국내 1위를 차지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산페드로스퀘어 마켓에 AI 안면인식 솔루션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17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AI 플랫폼 기업인 솔트룩스는 지난 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솔트룩스가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는 75만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 4000원~3만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180억원~225억원이며, 29일~30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솔트룩스는 디지털 휴먼, 챗봇, 콜봇 등 대화형 AI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최근 3개년 연평균 25% 이상 높은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AI 의료 기업인 뷰노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심사를 통과했다. 뷰노는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뷰노는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두 기관이 진행한 기술성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으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뷰노는 의료데이터 전처리·학습·제품화 등 AI 솔루션 개발 전 과정에 최적화된 자체 딥러닝 엔진 ‘뷰노넷’을 기반으로 경량화된 AI 모델을 개발해왔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 금액은 200억원 정도이다.

AI 솔루션 기업인 다음소프트는 지난 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달 상장 기술성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매출 163억원,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소프트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벤처로 설립된 후 2000년 분사한 회사로, 대표 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는 금융·공공·유통·제조 등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하나의 앱으로
배달·주문·이벤트를
한번에!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iOS / Android 공용]



New

혼자라면!!!

1인혼닭

100%
국내산



1인혼닭 10,000원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점포 판매 제외

동네방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견쉼터 조성

고양시는 고양시동물보호센터 내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견 쉼터는 2019년 10월부터 8개월 간 황무지의 돌맹이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원으로 가꾸어 올 4월에 완성됐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버려지는 연산홍, 철쭉, 돌단풍, 옥잠화를 식재했

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장미(붉은색, 분홍색, 흰색)와 농촌진흥청 바이오식물연구소(김병수 박사)에서 제공한 유채꽃을 심어 심미적 효과를 높였다.

반려견 쉼터는 무료이며 고양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양군, 지역현안 해결 속도

오도창 영양군수(왼쪽 세번째)가 지난 2일 산촌문화누림터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양군

예천 곤충생태원 배경 모바일게임 출시

지역 활용 게임개발 지원사업 선정

예천군이 예천곤충생태원을 배경으로 한 '배틀 벅스 아레나'가 경북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2020 지역 콘텐츠 활용 게임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배틀 벅스 아레나'는 예천 곤충산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임 콘텐츠 개발을 과제로 곤충 모바일 게임 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 문화 콘



지역 콘텐츠 지원사업 선정돼 '배틀 벅스 아레나'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예천군

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newsmun@

"경북도가 청년 어촌정착을 응원합니다"

경북도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반학반어(半學半漁) 청년정착 지원사업' 참가자를 3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촌에는 청년층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들에게는 어

촌체험을 하게 하면서 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토록 해 어촌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참가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어촌에서 생활체험을 하게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부산에 AI·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

부산시, 대학·기업 혁신성장 지원 동의대, 인공지능 ICT 연구 수행 부산대,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2020년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양성사업' 공모에서 동의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동의대는 '인공지능 Grand ICT 연구센터'를 설립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87억5000만원(국비 150억원, 시비 15억원, 대학 2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융합 지역전략산업 혁신기술 개발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이전, 애로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Grand ICT 연구센터는 동의대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가 참여해 해양·항만, 제조·로봇, 의료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4개 분야 지역 전략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혁신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또,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통신방송 혁신 인재양성사업' 공모에 동의대와 부산대가 선정됐다. 사진은 동의대전경. /부산시

자 대상 인공지능 전문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해 기업 수요 기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융합 고품질, 고부가가치 융합제품·서비스 발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수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부산대학교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54억 3000만원(국비 44억원, 시

비 4억4000만원, 민간 5억 9000만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원천기술 및 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연동 기술 개발 ▲블록체인 석·박사급 핵심인력 양성 ▲블록체인 기술창업, 애로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센터는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가 참여하여 블록체인 보안·서비스·암호화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블록체인 코어 플랫폼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 산학협력을 위한 재직자 전문교육 등 지역산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역할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유치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급인력을 배출해 산업 융합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학,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학연관 공동 프로젝트 등 지속적인 발굴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나주시, 국내 첫 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조성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업무 협약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 구축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나주에 국내 최초로 최첨단·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형 농업방식인 스마트 농업의 핵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첨단 농기계에 접목해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고 지역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전남도 종자관리소 부지 53ha에 400여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기본계획과 세부설계에 들어간 뒤 2023년 말까지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앞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설계와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할 한국농어촌공사,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전남대와 협약을 했다.

시범단지에는 무인 육묘장, 첨단 농업기계화·종합관리센터, 무인·자동화농기계(22종, 50대)와 관리시설, 노지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농업기술원은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나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도 농업기술원과 나주시 등은 시범단지가 청년 농업인 육성의 요람이자 농기계·정보통신 등 연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재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1천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첨단 미래농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업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장성군 백양사 불상, 국가지정 보물된다

현존하는 현진 작품 중 가장 오래돼

장성 백양사의 400여 년 된 불상이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장성군은 백양사 극락보전 내에 위치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보물 지정을 예고한 데 이어, 향후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07년 조각승 현진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진은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현재 다수의 작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존하는 현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대좌(불상의 받침대) 내부에 남아있



장성 백양사의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가지정 문화재

는 목서명(떡 글씨)에 의하면 선대 왕의 명복과 성불을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온화한 얼굴과 자연스러운 자세 등에서 17세기 불상 조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안동시 올해도 '스마일 친절운동'

경북 안동시는 올해도 스마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테이블 세팅지 24만 부를 제작해 지역 모범음식점 등 110개소에 배부했다.

이 사업은 안동시민의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지쳐있는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스마일 테이블 세팅지 배부사업의 반응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다시 가고 싶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친절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스마일안동 친절캠페인 송' 및 안무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따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1 | 해질 19:50

6월 4일 (목) 음력 : 4월 13일

수도권 날씨 **26~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 날씨: 연천 18/28, 동두천 17/27, 가평 17/27, 파주 17/26, 서울 19/26, 양평 19/28, 인천 17/22, 수원 20/25, 용인 20/25, 평택 20/29, 백령도 14/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라이프]
집에서 간편하게
HMR 안주 대전
니



Life

[라이프]
롯데백 아모레스토어
대면 없이 뷰티체험
L2



유흥시설 “강제휴업에 굶어죽는다”... 집합금지 민원 폭주

서울시 유흥시설 서류·전화 민원
소상공인 대출·보상금 없어 막막

서울시, 지원금 등 대책마련 건의
환자 증가세 안정까지 상황 유지 될 것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류로만 총 153건 접수됐다. 전화를 통한 민원은 하루 평균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8~19일 강남 룸살롱 ‘크루&트렌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초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들던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발병이 터졌고 시는 5월 9



지난 4월 8일 오전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2146개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반강제적 폐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서울시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삼동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한달 중 3분의 1 이상의 영업일수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가게 월세만 해도 천만원 중반인데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파산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휴업 보상이라든지 영업을 금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파산·도산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간청했다.

마포구에서 룸이 2개 있는 노래방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B씨는 “11년 전 유흥주점으로 신고했던 곳을 인수받아 장사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지난 1차 영업정지 때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 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유흥시설 휴업 지원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해온 C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번에 이어 또 내려졌다”며 “저번에는 벌여둔 돈이

조금 있어서 한달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유흥업소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으나 강제조치로 굶어 죽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부분적인 영업 재개나 재난지원금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의 시민들로부터는 유흥시설의 영구적인 추방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다”며 “신규환자의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에 현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만들 것”

‘CAC 서밋’서 기후·환경분야 발표
“한뼉의 도시공원도 지정해제 막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3일 서울시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분야 발표에서 “숲과 정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뼉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안전한 ‘그린 쉼터’로서 공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강남과 강북권 각 1곳에는 ‘바람길숲’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

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돼 오는 7월 1일부터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km²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그린뉴딜을 통해 서울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탈(脫)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와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 공공기관 차종 전기차·수소차 의무화와 충전 인프라 확대, 자원회수 시설 확충, 2022년까지 시민속의예산 1조원 확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덕경제학’ 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박사, 이화여대 자

연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 등 석학들도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울스 박사는 지금까지 시장(市場)과 정부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꼭지점으로 부상해 ‘시장-정부-시민사회’의 삼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울스 박사는 “윤리, 도리, 연대감 등이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신호나 정부의 명령이 아무리 잘 전달됐더라도 시민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교수는 “이번 세기, 10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극단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친환경’, ‘환경주의’ 등의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를 넘어서는 환경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대응 비상식량 지원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직원들이 서울시내 재난취약계층 899가구에 전달할 ‘코로나19 대응 재난취약계층 비상식량세트’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제조업체에 3000만원 긴급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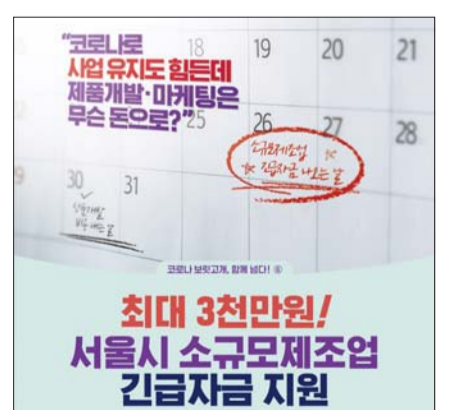
긴급자금 지원 5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15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신청은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업종별로 신청 일정을 나눴다. 의류봉제·수제하는 5~19일, 인쇄는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10~24일, 기계금속은 15~29일이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를 업종별로 1곳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해당 업종 신청 기간(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지난해 117건

1년새 2배 늘어... 충전 중 화재 발생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73건, 2018년 57건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자전거 사고는 각 830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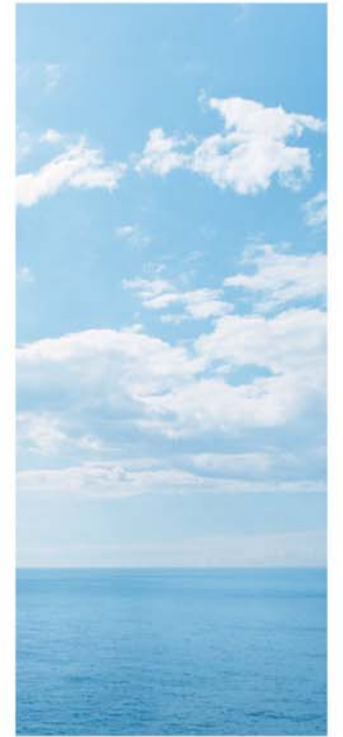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3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63건으로 25.5%를 차지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7년 9건, 2018년 10건, 2019년 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 말까지 12건 일어났다. 2017~2019년의 42건 중 95%인 40건은 충전 중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화재는 충전지에서 폭발적인 연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며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충전해야 화재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SAMSUNG



서큘레이터 급속냉방으로. 쉼자마자 시원해지는. 파워풀한. 무풍생활.

에어컨은 할 수 없다
무풍만이 할 수 있다

삼성 무풍에어컨

에너지효율 가전 확인하고 환급 혜택 누리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에너지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사업(2020.3.23~12.31, 사업비용 소진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http://rebate.energy.or.kr>) 또는 구매매장에 문의 *해당모델에 한함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